

제6장 민속

제1절 언어

1. 음운

1) 기저음운체계

(1) 음소체계

음소를 순수자음, 순수모음, 유음, 활음으로 분류한다면 포항말의 순수자음에는 p (ㅍ), p'(ㅍ'), p^h(ㅍ^h), t(ㄷ), t'(ㄷ'), t^h(ㄷ^h), c(ㅈ), c'(ㅈ'), c^h(ㅈ^h), k(ㄱ), k'(ㄱ'), k^h(ㄱ^h), s(ㅅ), m(ㅁ), n(ㄴ)이 있다. 그러나 s'(ㅅ')는 음소적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중부 방언의 '살(肉)'과 '쌀(米)'은 포항말에서 '살'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순수모음에는 i(ㅣ), ε(에/애), ə(어/어), u(우), o(오), a(아)가 있다.

포항 말에서 e(에)와 ε(애), ə(어)와 어)는 각기 음소적 대립을 가지지 못하고 각각 ε와 ə로 중화되어 있다. 유음에는 l(ㄹ)이 있으며, 활음에는 w, j, h(ㅎ), ?(ㅎ)이 있다.

(2) 운소체계

포항말은 운소(韻素)로서 음장(音長)과 성조(聲調)를 가지고 있다. 음장에는 장음(長音, : 표시)과 단음(短音)이 있고, 성조에서는 고조(高調, '표시)와 저조(低調)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 성조와 음장의 통합은 저조에서만 가능한데, 이들이 운소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된다.

말 (馬) + 이 → 말 이	배 (梨) + 가 → 배 가
말 (斗) + 이 → 말 이	배 (腹) + 가 → 배 가
말 : (言) + 이 → 말 : 이	배 : (倍) + 가 → 배 : 가

2) 음운현상과 음운규칙

(1) 활용의 경우

① ‘으’ 삭제규칙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오는 어미 두음 ‘으’는 삭제된다. 중부 방언과는 달리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삭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으모→가모(去), 열+으모→열으모(氷)

② 모음조화규칙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어간이 1음절이고 어간말자음이 ‘ㅎ’인 경우에 한하여 모음조화 규칙이 있다. 1음절 어간으로서 모음으로 끝나면 모음조화를 보인다.

*앉+아→앉아(坐), 죽+아→죽어(死), 놓+아도→나아도(放), 열+아도→여어도(入), 가+아도→가도(去), 서+아도→서도(立)

③ 어간이 ‘ㅣ’로 끝나는 경우의 음운규칙

어간이 ‘ㅣ’로 끝나는 경우 1음절 어간은 음절 구성에 따라서 다른 음운 현상을 나타낸다.

- 스, 츠, 썸으로 시작되는 경우 ‘ㅣ’는 어미 ‘아’와 결합하여 활음 j가 삭제된 ‘ㄱ’로 실현된다.(ㅣ+ㅏ→ㄱ→ㄱ) *지+아도→저도(落), 치+아도→처도(打), 찌+아도→찌도(蒸)
- 스, 츠, 썸 이외의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ㅣ’로 실현된다.
(ㅣ+ㅏ→ㄱ→ㄱ) *피+아도→피도(發), 기 : +아도→기도(圃)
-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여’로 실현된다. *이+아도→여도(戴)
그러나 어간이 ‘ㅣ’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어간말 모음 ‘ㅣ’와 어미 어두 ‘아’가 결합할 때 4가지 부류의 용언이 각기 다른 음운현상을 보인다.
- ‘벗기 : (使脫), 모이 : (被集), 죽이(使殺), 다다키 : (發覺)’ 등은 ‘ㄱ’로 실현된다.
(ㅣ+ㅏ→ㄱ→ㄱ) *벗기 : +아도→벗게 : 도, 모이 : +아도→모예 : 도
- ‘빠지(溺), 널찌(落), 처지(落後), 조지(毀), 끄지(被消)’ 등은 ‘ㅣ’가 삭제된다.
(ㅣ+ㅏ→ㅏ) *빠지+아도→빠자도, 널찌+아도→널짜도
- ‘빠아지(被碎), 가레지(被選)’ 등 보조동사 ‘-지-’가 붙는 3음절어간은 ‘ㄱ’로 실현된다.(ㅣ+ㅏ→ㄱ→ㄱ) *빠아지+아도→빠아저도, 가레지+아도→가레저도

- ‘때리(打), 푸드리(打), 갈치 : (敎), 갑치(促)’ 등은 위의 규칙 ‘1+1→1’와 ‘1+1→1→1’ 현상을 다 나타낸다. *때리+아도→때라/레도, 갈치 : +아도→갈차 : /체 : 도

④ 어간이 ‘ㄷ’로 끝나는 경우의 음운규칙

어간이 ‘ㄷ’로 끝나는 용언의 음운현상은 음절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음절 어간을 가지는 것들은 어미 ‘아’와 결합하면 활음형성(ㄱ)과 활음삭제의 과정을 거쳐 ‘ㄱ’로 실현된다.(ㄷ+ㅏ→ㄱ→ㄱ). *추+아도→초도(舞), 누+아도→노 : 도(排泄)

2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ㄱ→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나 둘째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활음삭제가 이루어진다.(ㄷ+ㅏ→ㅏ→ㅏ) *싸우+아도→싸와도(爭), 서우+아도→서와도(使立), 농구+아도→농가도(分), 시무 : 아도→시마 : 도(植)

⑤ ㄹ 삭제

형태소 경계에서 어간 말음 ㄹ은 모든 자음 앞에서 삭제된다. 이 현상은 노년층에 한한다. 그러나 공통어와는 달리 어미 두음 ‘으’ 앞에서는 삭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달+다→다다(甘), 맨들+더라→맨드더라(造), 얼 : +고→어 : 고(氷), 팔+지→파지(買), 갈 : +오모→갈오모(磨)

⑥ ㅇ 삭제

어간말자음 ㅇ은 모음 앞에서 삭제된다.

*놓+아도→나아도(放), 깨꿀+아도→깨까아도(使覺)

⑦ ㅎ 삭제

중세 국어 시기에 어간말자음으로 ㅎ을 가졌고, 현대국어 정서법에 의하여 ‘ㅅ’으로 표기되는 이른바 ‘ㅅ’변칙용언들인 ‘붓-(注), 짓-(作)’ 등은, 포항말에서 어간말에 ㅎ을 가진 것으로 재구조화되어 모음 앞에서 삭제된다.

*붓+고→북꼬, 붓+아도→바아도, 징 : +고→직꼬, 징 : 아도→지아도

⑧ ‘르’ 변칙 활용

공통어에서 흔히 ‘르’변칙용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르-(異), 빠르-(速)’ 등은 포항말에서 ‘다리-, 빠리-’로 재구조화되었으며, 이들이 ‘아’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첨가된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재구조화와 관련이 없는 ‘너리-(降)와 ‘짜리-(短)’도 이 같은 현상을 보인다. *다리--+아도→달라도, 빠리--+아도→빨라도, 너리--+아도→널라도, 짜리--+아도→짤라도

(2) 곡용의 경우

① ㅁ, ㄴ의 삭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체언의 어간말자음 ㅁ은 삭제되며, 모음 ‘ㅣ’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체언의 어간말자음 ㄴ은 삭제된다. 이 경우 어간말음절과 후행하는 모음은 비음화(~표시)된다.

*방(房)+에→^ㅁ바아, 방+이→^ㅁ바이, 산(山)+이→^ㅁ사이

② 경음화

활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곡용의 경우에도 경음화는 어간말자음이 순수자음이고 어미두음이 폐쇄음일 때 일어난다. 다만 곡용의 경우 체언의 말자음이 비음이면 어미의 두음이 폐쇄음이라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대신 체언의 말음이 ㄹ이고 두음이 ㄷ일 경우 ㄷ이 경음화한다.

*밥(食)+도→^ㄷ밥또, 잠(眠)+도→^ㄷ잠도, 글(書)+도→^ㄷ글또, 돌 : (石)+도→^ㄷ돌 : 또

③ ‘ㅣ’ 모음역행동화

‘ㅣ’ 모음역행동화는 주격어미 ‘이’나 계사(繫辭) ‘ㅣ’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 그러나 포항말의 이 현상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나락(禾)+이→^ㅣ나랙이, 법(法)+이→^ㅣ벵이

2. 어휘

어휘 자료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및 형용사, 부사의 순서로 제시하려 한다. 방언형의 ()속 기호는 특정 지역이나 연령층에 국한되는 어휘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해)→해안 지역, (노)→노인, (소)→젊은이, (계)→기계면, (대)→대송면, (오)→오천읍, (청)→청하면, (신)→신광면

1) 명사

(1) 인체

가슴 : ^ㅁ가심

무릎 : ^ㅁ물팍, ^ㅁ무르팍

뼈 : ^ㅁ뼈, ^ㅁ뼈간치, ^ㅁ뼈다구

머리카락 : ^ㅁ털꺼디이

가마 : 가매
 눈꺼풀 : 눈떠버리, 눈까푸리
 턱 : 턱, 턱수加里
 복사뼈 : 복상씨, 복상뼈
 털 : 털, 터리, 터레기
 옆구리 : 옆구레, 앞구레
 살 : 살, 살따구
 쓸개 : 쓸개, 열 : (해)
 혀 : 쉼

(2) 도구

바지계 : 바소구리, 바소고리
 작두 : 짝두
 숲 : 수경
 삽 : 수근포
 사발 : 사바리
 시루 : 시리
 화로 : 하 : 리, 화 : 리
 기와 : 게와
 자리(座) : 차리
 도마 : 도매
 전화 : 전 : 나
 거울 : 거울, 민 : 경, 민 : 경
 섬 : 섬, 부개(해)
 조리 : 조 : 래
 다듬잇돌 : 서답돌
 도롱이 : 우 : 장

(3) 의복

깃 : 깃, 짓
 소매 : 사매, 사매쪼디(계)

이마 : 이매, 이마빼기, 이마빳
 뺨 : 뺨대기, 빼마때기
 겨드랑이 : 자드랑, 자트랑, 재드래이
 곱슬머리 : 꼬시락머리, 꼬실매
 수염 : 세 : 미, 쇠 : 미
 왼손 : 왼손
 부스럼 : 부시럼, 헌 : 디이(해)
 입술 : 입서블
 가르마 : 가리매, 가르매, 가름패(대)

키(箕) : 체이, 치이
 가위 : 까시계
 또아리 : 따배기
 대접 : 대지비
 접시 : 접시기
 가마(轎) : 가 : 매
 경운기 : 게운기, 탕따깨이
 자루(柄, 貸) : 자리
 그릇 : 그륵, 그룻
 젓가락 : 절가락
 벼루 : 베리, 베로
 가마니 : 가마이, 가매이
 도끼 : 도 : 치, 도 : 꾸
 제기 : 제 : 기, 짱꼴라
 되(升) : 데배기
 길마 : 질매, 질 : 매(해)

치마 : 치매, 처매
 허리띠 : 허끈, 혈끈

단추 : 단추, 단초
 주머니 : 주머니, 개아주머니,

골무 : 골 : 미
 보게또, 개가(해), 개화(해)

(4) 곡물·식품

쌀 : 쌀
 옥수수 : 강낭, 강내이
 난가리 : 배까리
 등겨 : 등겨, 당가리
 아침 : 아침, 아침
 저녁 : 저녁, 지역
 간장 : 지랑, 지렁
 가루 : 가리
 콩나물 : 콩치름
 냉이 : 남새이
 무 : 무꾸, 무시
 부추 : 정구지
 조 : 죄

수수 : 수꾸
 벼 : 나라
 왕겨 : 세 : 짜
 김치 : 짠지
 점심 : 전 : 섬, 전 : 심
 우뚝가사리 : 천추
 식은밥 : 시인밥
 수제비 : 수지비, 수지기(노)
 고추 : 꼬치
 달래 : 달래이
 채소 : 나물새, 채 : 소
 송편 : 생핀, 꼬막떡
 좁쌀 : 짹쌀

(5) 새·짐승

까치 : 까 : 치, 깐 : 치
 꿩 : 꿩
 병아리 : 빼아리, 빼개이, 빼아가리
 고양이 : 고 : 내기, 살찌이
 두더지 : 띠지기
 여우 : 예수
 비둘기 : 빼들기
 베슬(鷄冠) : 베실
 호랑이 : 호래이, 호리이
 암늬 : 암늬

까마귀 : 까마구
 닭 : 닭, 다리(해)
 달걀 : 달알, 계탈, 잘알(해)
 노루 : 노리, 놀개이
 도끼 : 토끼, 태끼, 토개이, 태개이
 염소 : 암새이
 매 : 솔배이
 샅괭이 : 썰개이, 썰기이
 오리 : 올 : 기
 수늬 : 숙늬

(6) 어류·곤충·파충류

멸치 : 메레치

미꾸라지 : 미꾸락지

게 : 기:, 끼:

고기 : 괴기, 게기

모기 : 모:구, 모개이, 모:기

벌 : 버:리

매미 : 매래이

달팽이 : 하:마(노), 달패이

벼룩 : 베레기, 베리기

나비 : 나부

올챙이 : 오쿨채이

오징어 : 이까, 오징어

자라 : 자래

소라 : 골배이

누에 : 누베, 니베(계)

구더기 : 구:데기

잠자리 : 철기, 철개이

벌레 : 벌거지, 벌기, 벌개이

개구리 : 깨구리

파리 : 파래이

방아개비 : 흥글레

고등어 : 고드애, 고다아(해), 고:대(대)

(7) 자연환경

북동풍 : 셋바람

흙 : 흘

돌 : 돌:, 뚝:, 돌배이, 돌미이

길 : 길, 질, 짚(짚+에→질계)

샘 : 새:미

아지랑이 : 아라래이, 아리새기

벼락 : 베락

겨울 : 겨웁·저실·저십(노), 겨울(소)

추위 : 추부, 추비

북서풍 : 하늘바람

모래 : 몰개, 몰개미(신)

바위 : 바우, 방구, 바우

우물 : 웅굴

강변 : 갱빈

진흙 : 구개, 구개흙

가을 : 가웁·가십(노), 가실(노), 가을(소)

더위 : 더부, 더비

골(谷) : 곽(곽+이→골시)

(8) 친족

할아버지 : 할배, 할부지

아버지 : 아배(노), 아부지(소)

숙부 : 아재, 아지야(소)

시아머니 : 어두이

할머니 : 할매, 함매

어머니 : 어매(노), 어무이(소), 엄마

시아버지 : 아분님

누이 : 누나, 누부, 누님(결혼 후)

시속 : 아지반^남

울개 : 월^개

동생 : 동^생, 동^성(대)

동서 : 동^서, 동^새

집안 : 기^반

시동생 : 아지^뱀

아우 : 아^우, 아^시(노)

조부 : 조^부, 조^보(노)

오빠 : 오^빠, 오^라배(노)

2) 대명사

나 : 나(나+가→내 : 가, 나+의→내,

나+를→나 : 를/날 : , 나+로→

날 : 로, 나+도 : 나도/난 : 도

너 : 너/니(너/니+도→너/니도, ^{넌/넌도})

저희(3인칭) : 저^거

{이, 그, 저}것 : {이, 그, 저}거

{이, 그, 저}아이 : {야, 가, 자}아

{요, 고, 조}기 : {요, 고, 조}고

{이, 그, 저}리+로 : {일, 글, 절}로

{이, 그, 저}때 : {이, 글, 저}때

저(1인칭) : 저^지, 저^지

저희(들) : 저어(들)

너희((들) : 너어(들)

저(3인칭) : 저^지, 저^지

우리 : 우리

{요, 고, 조}것 : {요, 고, 조}고

{여, 거, 저}기 : {여, 거, 저}거

다른사람 : 다^리이

{요, 고, 조}리+로 : {을, 골, 줄}로

{이, 그, 저}처럼 : {이, 그, 저}칠

3) 수사

하나~열 : 하^나/한^나, 둘 : /두 : 나, 서^이/시 : 나, 너^이/니 : 나, 다^서, 여^서, 일^곱, 여^덜,

아^홉/아^코, 열 :

스물~백 : 시^물, 서^른, 마^흔, 십 : ,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백

한^시~여^섯시 : 한^시, 두 : 시, 시 : 시, 너 : 시, 다^아시, 여^어시

한^개~여^섯개 : 한 개, 두 : 개, 시 : 개, 너 : 개, 다^섯개, 여^섯개

한^말~여^섯말 : 한^말, 두 : 말, 서 : 말, 너 : 말, 닷^말, 엇^말

한^명~열^명 : 하^내이/한^키/하^나키, 두 : 키, 시 : 키, 너 : 키, 다^섯키, 여^섯키, 일^곱키,

여^덜키, 아^홉키, 열 : 기/열 : 비

4) 동사·형용사

끌-(^리) : 끄^췌-

물리(被^憎) : 밀^리 : -

뒤지-(^索) : 디^비-

내리-(^降) : 내/너^리-

- 담-(盛) : 다무-
 잃-(失) : 잃-
 심-(植) : 수무 : -, 시무 : -
 가르치-(敎) : 갈치 : -
 짓-(作) : 짚-
 죽이-(使死) : 죽이-
 입히-(使着) : 입히 : -
 앓-(痛) : 앓-
 고치-(改) : 곧치-
 달아나-(逃) : 달라나-, 달라가-
 부럽-(羨望) : 붉-
 싫-(慾) : 집-
 살리-(使生) : 살굵-
 시키-(使) : 시기-
 속이-(欺) : 섹이-
 부러뜨리- : 뿌직-
 끓이- : 킬리-
 달이- : 딸기-
 나누- : 농구-
 신-(履) : 심-
 뚫-(貫) : 뚫/뚫-
 먹-(食) : 묵-
 뱉-(唾) : 패발-
 쉽-(易) : 습 : -
 잇-(連) : 이술-, 이우-
 씻-(洗) : 씻-
 전복(顛覆)되- : 디시지
 만들-(造) : 맨들-, 만드키-
 켜-(點火) : 쓰-, 씨-, 혀-(계)
 짚-(搗) : 직-
 가렵- : 지그럽-
- 말하-(謂) : 카-, 주끼 : -, 말하-
 알리-(使識) : 알리 : -, 알굵-
 어리-(幼) : 애리-
 부수-(碎) : 뽕-
 옮기-(移) : 옮기-, 옮기-, 옮기-
 먹이-(使植) : 먹이 : -
 당기-(引) : 땅그-
 줍-(拾) : 중-
 낳-(産) : 낳-, 낳-
 쓰-(苦) : 씹-
 냅- : 내그럽-
 우습- : 위습-(노), 우습-
 노력하- : 바둥-
 차리- : 채리-
 깨우-(使覺) : 깨꿍-
 끓- : 끓-
 달-(煎) : 툇-
 흠치- : 도두키-
 넣- : 열-
 꽂-(插) : 꼽-
 짜-(鹽) : 째-
 얕-(淺) : 야꾸-
 쓸-(掃) : 쓸-
 가깝-(近) : 가직/잡-
 붓-(注, 腫) : 붓-
 꾸짖-(叱) : 머라하-
 일으키- : 일바키-
 견디- : 전디-
 째- : 짜리-
 빨-(碎) : 빠직-, 빨-
 삼키- : 생키-, 냉기-

막히- : 매키- : -, 매이 : -
 간직하- : 간죽-
 겪- (驗) : 쥐-
 문지르- : 민때-
 줄이 (使縮) - : 줄굵-
 쓸- (斷) : 상글-
 다니- (行) : 땡기-, 단니-

붙- (加) : 뿐-
 작- (小) : 짝 : -
 가리- (選) : 갈리-
 달라- () : 두/도- (직접명령), 줄 : 라- (간접명령)
 고르- (選) : 골 : 리-
 분별 (分別) 없- : 오 : 줄없-
 다급해지- : 운집달 : -, 운판달 : -

5) 부사

제각기 : 시세마쿰
 어서 : 어픈
 금방 : 인작
 모두 : 마 : 카/캐, 삼통
 이따가 : 오따가
 내내 : 내드룩, 내덜
 워낙 : 원칭
 어떻게 : 우예, 어예
 아까 : 아께 :
 아마 : 아 : 매
 좀처럼 : 조 : 매
 비스듬히 : 뺨드라시
 나중에 : 낸 : 제

이내 : 이양
 덜 (未) : 더리
 도리어 : 다부
 매우 : 미이
 저물도록 : 점드룩, 점덜
 거꾸로 : 까꿀로
 겨우 : 제 : 구
 갑자기 : 각 : 장아
 거의 : 거진, 건중
 공연히 : 백 : 제
 왜 : 와
 늦게 : 느까 :

3. 형태와 통사

1) 곡용어미

(1) 격어미

① 주격어미

포함말에서 발견되는 주격어미에는 ‘이, 가, 이가’와 주격표시의 기능을 가진 ‘에서, 에서라/러, 더라/러’가 있다. ‘에서’와 ‘에서라/러’는 제약조건 없이 교체되며, ‘께서’는

일상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물이 앤 말라... 본대 가게가 두 개랏더등... 전에는 사 램이가 마이 앤 살고(전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고)... 면에서 하라 캐서... 중학교서 라/러(중학교에서) 알 리가 있다. 서이더라/러(셋이서) 같이 갖어.

② 처격어미

처격을 표시하는 어미에는 ‘에, 이, 더라’가 있다. ‘이’는 선행 체언이 ‘집(家)’과 ‘날(日)’일 때 한해 쓰이며, ‘더라’는 체언의 끝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만 실현된다.

*논에 가서 모 심아라. 그 집이 가모(그 집에 가면)... 일료일날이(일요일에) 어데 갖도오? 병풍바우더라(병풍바위에다) 글을 새게 놓고...

③ 대격어미

대격을 표시하는 어미에는 ‘르, 을/를, 으를, 로, 으로’가 있다. ‘르’와 ‘를’은 모음 뒤에서, ‘을’은 자음 뒤에서 실현된다. ‘로’는 체언의 말음절이 모음이나 ‘르’로 끝날 때 발생하며, ‘으로’는 자음으로 끝날 때 발생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으를’과 구 별 없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니가 날 때렛나? 돈을 잃어 뺏어(돈을 잃어 버렸어). 작년에 아파트를 하나 샀지. 유고가 없는 사람으를 내서와 가주고(유고가 없는 사람을 내세워)... 방아로 짚아가 떡을 하는데(방아를 짚어서 떡을 하는데)... 왜넙들이 혈로 끓앗지. 그 많은 나락으로 다 베레뿌고(그 많은 벼를 다 베려 버리고)...

④ 조격어미

자격이나 신분, 도구, 방향, 수단 등을 나타내어 조격을 표시하는 격어미로는 ‘으로’가 있다. *글때(그 때)는 서당 접장으로 잇앗지.

⑤ 호격어미

호격에는 ‘아/야, 애이, 요’가 있다. ‘아/야’는 앞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선택되며, ‘요’는 존대표시의 경우에 쓰인다.

*철아, 이리 오나라. 인수야, 학교 가가라. 태훈애이, 아직 묵아라. 아버지요, 장아가시더.

(2) 후치사 및 첨사

① 여격 표시 후치사

포함말에 쓰이고 있는 여격표시 후치사에는 ‘한테, 자테, 인데/테, 보고’ 등이 있다. *내한테 오모 해 주지. 아버지자테 가서 물아 바라. 니인데/테 머라 카도(너에게 뭐라 하더냐)? 누가 엄마보고 그랬나.

② 공동격 표시 후치사

공동격을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하고, 카/강’ 등이 있다. *그 사람하고 어예 데능교 (그 사람과 어떻게 됩니까)? 아카/강 같이 갖어.

③ 비교 표시 후치사

비교를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거치, 맨지로, 매로, 뽐/뿌다, 만, 만큼, 카마, 처럼’ 등이 있다.

*지거치 문난 사람 잇으까바(자기같이 못난 사람 있을까봐)… 꼭 포도맨지로 생겼다. 놀갱이매로 띠기사 잘 띠다(노루처럼 뛰기야 잘 띠다). 내뽐/뿌다야(내보다야) 백배 낫지. 그 집이는 이 집만 몬 하지. 가아만큼만 해라(그 아이만큼만 해라), 니카마야 몬 하까바(너보다야 못할까봐)… 전에는 지금처럼 마이 앤 살고…

④ 출발점 및 도착점 표시 후치사

출발점을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부터, 버텨, 부텨’이 있고, 도착점을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까지, 꺼지, 꺼정’이 있으나, 이들은 각각 구별 없이 쓰인다.

*여거{부터, 버텨, 부텨} 시작하자. 글때{까지, 꺼지, 꺼정} 학교도 앤 가고…

⑤ 선택 표시 후치사 및 첩사

선택을 표시하는 후치사 및 첩사에는 ‘도, (이)나, 마/만, 배께/끼’ 등이 있다. *난도 젊었을 직에(나도 젊었을 적에)… 술이나 한잔 두가(다오). 니마/만 잘 하모 앤 데나 (너만 잘 하면 안 되나). 그 사람으느 지 아들배께/끼 모린다(그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모른다).

⑥ 주제 및 대격 표시 첩사

주제 또는 대조를 표시하는 첩사에는 ‘은/는, 으느/는, (이)야/사, 일랑/랑야’ 등이 있다. *산은 다 팔아 뿌렛고… 저 차는 고급차다. 원님은/는 설빔을 풀아 주기로 했지. 공부야/사 가아만큼 할 님이 잇을라꼬. 그걸{랑, 랑야} 잇아뿌레라.

⑦ 공평 및 열거 표시 첩사

공평함을 표시하는 첩사에는 ‘마다, 석’이 있고, 열거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이)니, (이)야, (이)고’ 등이 있다. *사람마다 다 다리지. 하나석 둘석 없아진다. 하나이니 둘 이니 캐 밧자(하나니 둘이니 해봤자)… 아들이야 딸이야 모예가주고… 논이고 밧이 고 헝핀 없아.

2) 활용어미

(1) 종결어미

① 서술법

■ 해라체 : 해라체의 서술법을 표시하는 데는 ‘-다, -은/는다, -라, -어, -아, -지, 재, -지를, -거든, -꾸마’ 등이 사용된다. *그 집이 메느리가 참 좋다. 들에(들)에 간다. 그말으는 달라났어(달아났어). 맞다 맞아. 내가 했지. 돈이 있어야 논을 사재. 거거도(거기도) 마을이 잇지를. 글때 죽앗거든. 내가 하꾸마(할게).

■ 하계체 : 하계체의 서술법은 ‘-네’에 의하여 표시된다. *잘 묵앗네.

■ 하소체 : 하소체의 서술법은 ‘-니더, -(으)이더, -시더, -라/래요, -아요, -지요, 거든/등요’ 등에 의해 표시된다. *정말 속시끄럽니더. 참 좋으이더. 잘 모릴께시더. 고마븐 사램이라/래요. 하나도 없어요. 말이 쯤 빠리지요. 밤새미를 했거든/등요.

② 의문법

■ 해라체 : ‘-가/고, -라/로, -나/노, -다/도, -까/꼬, -제, -을래, -은/는데, -지를, -라나, -ㄴ강/공, -는강/공’ 등이 해라체의 의문법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이 중 ‘-가/고, -라/로, -나/노, -다/도, -까/꼬, -ㄴ강/공, -는강/공’은 각각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선택된다. *이 집이 그 집이^가? 니 누구^고? 옥녀봉이 저 산이^라? 저 사람은 머^로? 떡묵안 기 언^첸나? 저 달이 와 우^노(저 닭이 왜 우^니)? 너자^테 안 카^다(너에게 안 그러^더냐)? 마알라^꼬 갖^도(뭐 하려고 갖^더냐)? 너^거 집이 가^까(너의 집에 갈^까)? 누^하고 가^꼬(누구하고 갈^까)? 니 생^일이 언^제제? 어^데 가^는대? 내^리(내일) 누가 오^는대? 비가 안^주(아직) 오^지를? 밥 묵^알라^나(먹으^려나)? 이^기 가 책^인강(이^게 그 아^이 책^인가)? 거^거(거기)는 누 집^인공?

■ 하계체 : ‘-은/는가, -은/는고’가 하계체의 의문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뒤의 것은 의문사가 있을 때 선택된다. *그 방이 앤 츨^던가? 그 날 잘 갖^는가? 자^아(저 아^이)가 누 아^들인^고? 자^네 어^디 사^는고?

■ 하소체 : ‘-은/인^고, -는/닌^고, -지/제^요, -을^까/꼬^요, -을^라요, -은/는^데요, -을^래요, -은/는^가요, -지^를요’가 하소체의 의문법을 표시하는 종결어미들이다. *어^데 갖^던/딘^고? 아^재, 머 하^는/닌^고? 말^이 쯤 빠^리지/제^요? 학^교 갖^다 와^서 머 하^까/꼬^요? 인^자 포^함쯤 갖^을라^요? 그^기 머^언데^요? 같^이 갈^래요?, 그 ^분이 언^제 죽^었는^가요? 진^작 다 했^지를^요?

③ 명령법

■ 해라체 : 해라체의 명령법에는 ‘-아, -아라, -으라, -가/거라, -나/너라, -나나, -가, -래’등이 있다. 이 중 ‘-나/너라’ 나 ‘-나나’ 는 ‘오-(來)’에만 연결되고, ‘-가’ 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 자신에게 주도록 명령할 때 사용되는 불완전동사 ‘도/두-’에만 연결된다. ‘-으라’는 직접명령과 간접명령에 두루 쓰이는 특징이 있다. *빨리 {앉아, 앉아라}. 절로 가라카이(저리로 가라니까). 내가 졸라 컷던 거 안 주나(내가 달라 했던 것 안 주니)? 옷을 벗고 자가/거라. 칼로 끊가/거라(칼로 끊어라). 낮 하나 가(가지고) 오나/너라. 우리 집이 온나. 대문 열아 도/두가(대문 열어 다오). 한번 가 보래.

■ 하계체 : 하계체의 명령법은 ‘-계’에 의하여 표시된다. *자네, 저거(저기) 가 보계.

■ 하소체 : 하소체의 명령법은 ‘-으소, -으시오, -세이’에 의해 표시된다. ‘-으시오’는 주로 해안지역에서만 쓰이는데, 이 경우 ‘-으소’는 화자와 가까운 사이에, ‘-으시오’는 가깝지 않은 사이에 사용된다. ‘세이’는 가까운 윗사람에 대한 부탁의 뜻으로 쓰인다. *잘 오소. 한 잔 하시오. 말하지 마세이.

④ 공동법

해라체의 공동법은 ‘-자’ 또는 ‘-재이’에 의하여, 하계체의 공동법은 ‘-으세’에 의하여, 하소체의 공동법은 ‘-으시더’ 또는 ‘-으시대이’에 의하여 표시된다.

*비 올라, 집이 {가자, 가재이}. 같이 가세. 빨리 {가시더, 가시대이}

⑤ 감탄법

감탄은 경어법에 의한 차이가 없다. ‘-구나/는구나, -아라/래이, -을르마는’이 감탄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좋기는 좋구나. 결국은 애(안) 오는구나. 아이고, 아파라/래이. 빨리 가야 델르마는….

(2)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는 존재어미와 시상어미로 구별되는데, 포함말에서 사용되는 존재어미에는 ‘-으시-’가 있고, 시상어미에는 ‘-앗-’과 ‘-랏-’(과거), ‘-더-’(과거 사실에 대한 보고), ‘-옴-’(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한 추단), ‘-을라-’(주어의 의도) 등이 있다. 과거를 표시하는 것 중 ‘-앗-’은 용언에, ‘랏-’은 체언에 사용된다. *엄마, 함매는 언제 오시는 교(엄마, 할머니는 언제 오십니까)? 손님 가셧니더(손님 가셨습니다). 전삼 묵앗나(점심 먹었니)? 본래 두 개 랏는데… 한 개 뿌이더라. 지금쭙 다 했옴다. 약 지아 묵알란다(약 지어 먹으려다).

(3)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대등적인 문장을 접속시키거나 계기적(繼起的) 행위 표시를 하는 ‘-고, -골랑, -고설랑’, 동시적 행위를 표시하는 ‘-으면/민서’, 뒤에 연결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아…(-아가주고/지고, -아야, -아도, -아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으이, -으이께, -으이께네’, 가장적 조건을 표시하는 ‘-으며/모/먼, -거든/등, -걸라’, 양보를 표시하는 ‘-지만/마는, -을쩍정, -디라도’, 과거행위의 계기나 후행절에 대한 원인을 표시하는 ‘-디이, -디이마는’, 한도를 표시하는 ‘-도/두룩’, 전환을 표시하는 ‘-은/는데’, 의도를 표시하는 ‘-을라꼬’, 동작의 중단 또는 전환을 표시하는 ‘-다가’, 행위의 계속을 표시하는 ‘-자’, 불확실성을 표시하는 ‘-은지/동, -는지/동’, 선택이나 무선택을 표시하는 ‘-든동/지, -거/게나, -으나’, 선행절에 대한 비유를 표시하는 ‘-드키’ 등이 있다. *한숨 자{고, 골랑, 고설랑} 왓어. 자면/민서 온갖 소리를 해. 방앗간에서 빠직아가주/지고… 돈이 잇아야 사제. 어른 열기(열이) 와도 소용없어. 밥 우에 엮어서 찌도 덴다. 니가 공부로 몬{하이, 하이까/께, 하이까/께네}. 좀 즐라 카머/모/먼 델 낀데(좀 달라 하면 될 건데)… {가거든/등, 가걸라} 안부 전해라. 물론 그렇지만/마는… 곧 {죽을쩍정, 죽디라도} 담배는 몬 끊는다. 나는 {몰렛디이, 몰렛디이마는}(나는 몰랐더니만)… 열 시가 넘도/두룩 와야 말이지. 내리(내일)가 삼운데 비가 온단다. 짚(길)에 가는데 구렁이가 한 마리 띄 버티고 잇어. 김이 갈라꼬 나오는데… 자다가 보이 사램이 없아. 내가 가자 끝나뿌렛어요. 사람인지/동 머언지/동 몰시더(모르겠습시다). 글때꺼정 머 헛는지/동 몰레. 돈이 안 대른 살이라도 {주든동/지, 주거/게나} 해라. 나는 잇으나 마나다. 장님 코끼리 해석하드키 다 달라.

(4) 내포어미

내포어미에는 관형사절형성어미, 명사절형성어미, 부사절형성어미가 있다. 관형사절형성어미에는 ‘-는, -은, -을’이 있고, 명사절형성어미에는 ‘-기’가 있으며, 부사절형성어미에는 ‘-으로/라, -지, -기/게, -그로’가 있다. *여거 꼬치 시맛는 데 파 바라. 싫은 소리 고마 해라. 니도 다 웃을 때가 잇나? 갈 때 날 부라래이, 한 번 나들기가 예립지, 방아 찍으로/라 간다. 다시는 오지 마라. 어예 좋기/게 해결 안 데까? 묵그로 나들 걸(먹게 놔들 걸)…

제2절 민요

1. 노동요

민요가 민중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면, 노동요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작업의 독려, 일하는 즐거움과 괴로움, 일의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 등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생무상, 남녀간의 사랑 등 노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하는 사람의 다양한 생활 감정을 표현한다.

포항 지역의 노동요는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별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잡역노동요로 나눌 수 있다.

1) 농업노동요

농업에 관련된 민요를 농업노동요라 하는데, 흔히 농요(農謠)라고도 부른다. 이 지역의 농업노동요는 논농사요, 밭농사요, 목축·퇴비요로 나눌 수 있다.

(1) 논농사요

논농사, 즉 논에 모를 내어 김을 매고 추수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러지는 노래를 말하는데, 농업노동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포항 지역에서 지금까지 채록된 논농사요에는 「물푸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벼베는소리」 등이 있다. 이 중 「모심는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짓을다자 짓을다자 이논바닥에 짓을다자
 그논바닥에 짓을다면 구름을걸어다 짓을다지
 이논바닥에 모모를심어 가지가지가 벌아도 장쾌로세
 우루야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심어도 정잘래라
 물길랑쳐정청 헐아놓고 췌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애야매전복 손에 들고 첩으야방에 놀러갔어

〈모심는소리〉(홍해읍 북송리)

(2) 밭농사요

포항 지역의 밭농사요에는 「밭매는소리」, 「보리타작소리」, 「메밀베는소리」 등이 있다. 이 중 「보리타작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호호 호혜야
 호호 호혜야
 열씨구나 잘도한다
 호호 호혜야
 먼데사람 보기가좋고
 호호 호혜야
 자태사람 듣기가좋다
 호호 호혜야

〈보리타작소리(부분)〉(동해면 금광리)

(3) 목축·퇴비요

포항 지역의 목축·퇴비에 관계된 노동요에는 「풀베는소리」와 「풀씨는소리」가 있다. 여름철 풀을 벨 때 부르는 「풀베는소리」는 겨울철 나무를 할 때 불려지기도 한다. 「풀씨는소리」 1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에라 끄떡드걸랑 반개주소
 늘레두가 늘레두가
 나물썩이 들어간다
 노석에 썩은땅을
 썩은거름 다모아라

〈풀씨는소리(부분)〉(홍해읍 북송리)

2) 어업노동요

어업노동요는 어업에 관련된 민요를 총칭한다. 포항 지역에서 지금까지 채록된 어부 어업요는 「그물당기는소리」, 「고기푸는소리」, 「노젓는소리」가 있는데, 이 중 「그물당기는소리」를 소개한다.

명사십리 해동화야
 이여차
 너꽃진다 설워마라
 이여차
 명연춘삼월 돌아오면
 이여차
 너는다시 피건만은
 이여차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여차

〈그물당기는소리(부분)〉(홍해읍 죽천리)

3) 벌채노동요

벌채노동요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나물을 켤 때, 산이나 들에서 풀을 벨 때 불러지는 민요다. 나무를 하는 벌목 현장에서 불러지는 벌목노동요와 풀이나 나물, 열매 등을 채취하면서 부르는 채취노동요로 나뉜다.

(1) 벌목노동요

이 지역에서 채록된 벌목노동요에는 「나무하러가는소리」와 「나무하는소리」, 「나무켜는소리」가 있다. 이 중 흔히 「어사령」으로 일컬어지는 「나무하는소리」를 소개한다.

북망산천 가신님은 제사때나 오실랑가
쟁쟁우는 어린자식 어미불러 애비간장 다녹는다
나는것이 눈물이요 쉬는것이 한숨이라
눈물이 비가되어 타는가슴 끄나주지
한숨이 모란풍되면 이내가슴 맑게해주지
아이고답답 내팔자야 이후야

〈어사령(부분)〉(죽장면 가사리)

(2) 채취노동요

포항지역 채취노동요에는 「나물캐는소리」가 있다. 「나물캐는소리」를 하위 항목으로 나누면 「나물캐러가는소리」, 「고사리캐는소리」, 「물랭이나물캐는소리」가 그것이다. 이 중 「고사리캐는소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라가는 올꼬사리 너라가는 늦꼬사리
쭈쭈이 끊아가주 계랠 같은 동솔안에
둘레살짝 데체가주 지렁장물 채놓고
늦대지베 오복소복 은대지베 오복소복
저기가는 저선배여 이꼬사리 잡숫고 가시오
말이사야 고맙다마는 길이바빠 몬묵고 가요

〈고사리캐는소리〉(청하면 미남리)

4) 길쌈노동요

길쌈노동요는 삼을 삼거나 물레질을 하거나, 베를 짜면서 부르는 노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 지역의 길쌈노동요에는 「삼삼는소리」, 「물레소리」, 「베짜는소리」 등이 있다. 이 중 「삼삼는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새는새는 낭게자고 쥐는쥐는 궁게자고
 어제왔던 새각시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우리걸은 아해들은 엄마품에 잠을자고
 엄마품에 잠을이뤄 엄마목숨 듣고저바
 두발을 뚜드리며 울음소리 응에응에
 어머니가 하신말씀
 원젓을 물려놓고 오른손을 등을치며
 자장자장 워리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잘도자고 뒷집개도 잘도잔다

〈워리자장(부분)〉(홍해읍 북송리)

2. 의식요

의식요란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의식요는 크게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세시의식요

세시명절에 행해지는 전통적 생활 풍속으로 주기성을 띠고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풍속을 우리는 세시풍속이라 한다. 세시의식요는 세시의식에서 불리어지는 민요를 말하며, 흔히 가신(家神)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노래인 가정의식요와 부락민이 의식에 대거 참가하여 부르는 부락의식요에는 분류되는데, 포함 지역에서는 가정의식요가 채록된 예가 없다.

포함 지역에서 채록된 부락의식요에는 「지신밟는소리」가 있다. 땅의 신인 지신을 위로하고 농가의 초복제액(招福除厄)과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세시에서 불려지는 노래이다. 지신밟기는 대개 정월 보름날 민가를 돌면서 마루, 부엌, 우물, 장독대, 축사, 두지 등 여러 장소를 돌면서 행해지는데, 「지신밟는소리」는 의식의 거행 장소에 따라 다양한 사설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성주신을 축원하는 노래로 마루에서 부르는 「지신밟는소리」를 소개한다.

어루화산아 지신아 어루화산아 지신아
 지신지신 밟으세 오방지신을 밟으세
 성주본이 어디메뇨 성주본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술씨받아 음양지로 흘렸더니

낮으로는 햇빛보고 밤으로는 이슬맞아
 한해두해 키워놓으니 소부동이 되었다
 소부동이 자라나서 청장목이 되었네
 청장목이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네
 앞집에 김대목아 뒷집에 이대목아
 날랜도끼 훑쳐베고 나무베러 가자스라

〈지신밧는소리(부분)〉(청하면 유계리)

2) 장례의식요

장례의식은 통과례 중에서 의식요가 불려지는 유일한 의식이다. 장례의식요는 장례운구요와 장례토목요로 나누어진다.

의식요이면서 노동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다. 장례 운구요는 상두꾼들이 운구(運柩)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상여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장례토목요는 무덤을 가래로 파거나 땅을 달구로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포항 지역에서는 무덤을 파는 노래는 발견되지 않고 달구로 땅을 다질 때 부르는 「달구소리」만 전승되고 있다. 이 중 「상여소리」를 소개한다.

북망산이 멀다해도 저 건너산이 북망이고
 너호옹 너호옹 너화넙차 너호옹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라
 너호옹 너호옹 너화넙차 너호옹
 부모형제가 많다해도 내대신 갈사람 아무도 없다
 너호옹 너호옹 너화넙차 너호옹
 친구벗이 많지마는 내대신 갈사람 아무도 없다
 너호옹 너호옹 너화넙차 너호옹

〈상여소리(부분)〉(청하면 미남리)

3) 신앙의식요

때에 따라 거행되는 의식에서 신앙, 즉 믿음을 중요시하는 노래를 신앙의식요라 한다. 신앙의식요는 보통 불교의식요, 무속의식요, 속신의식요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포항 지역에서 채록된 신앙의식요는 속신의식요 뿐이다.

속신의식요는 민간의 속신의식에 따른 노래로 「눈티없애는소리」, 「식초흔드는소리」, 「대보름놀이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눈티없애는 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관치야 관치야 내 눈에 까시 내두가
 관치야 관치야 내 눈에 까시 내두가
 어세이

〈눈티없애는소리〉(홍해읍 북송리)

3. 유희요

놀이를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위해, 혹은 놀이에다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유희요이다. 유희요는 유희의 수단이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기준을 두어 동작유희요, 도구유희요, 언어유희요, 놀림유희요, 자연물유희요, 조형유희요, 가창유희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동작유희요

동작유희요는 도구 없이 몸만을 놀려 하는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다. 동작유희요는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가려내고 뽑는 행위를 하며 노는 것이 있고, 동작을 함께 하며 노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있다. 전자를 동작경기요라 하고, 후자를 동작연기요라 한다.

동작경기요에는 「다리뽑기하는 소리」, 「목침찾기놀이소리」, 「숨바꼭질소리」 등이 있다. 동작연기요는 놀이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대부분 부녀자들의 노래다.

포항 지역의 동작연기요는 ‘칭칭이’라는 여성들의 놀이에서 불려지는 「칭칭이」와 ‘월월이칭칭’이란 민속놀이의 여러 과정에서 불려지는 「월월이칭칭」, 「달넘세」, 「재밌기」, 「대문열기」, 「동애따기」, 「외따기」 등이 있다. 이 중 동작연기요인 「칭칭이」한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치야칭칭나네
 치야칭칭나네
 세월아 봄한철 가지마라
 치야칭칭나네
 한번가서 죽어지면
 치야칭칭나네
 만수장이에 운불레라
 치야칭칭나네
 세월이가면 지훈자가지
 치야칭칭나네

〈칭칭이〉(청하면 미남리)

2) 도구유희요

도구유희요는 도구를 활용하여 노는 놀이에서 부르는 민요로 도구경기요와 도구연기요로 나누어진다. 도구경기요는 승부를 걸거나 무언가를 가려내고 뽑는 도구경기에서 불리는 민요로 「노름하는소리」와 「장기소리」가 있다.

도구연기요는 도구의 활용 자체를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로 죽장면 지역의 민속놀이인 지계상여놀이에서 불리는 「지계상여놀이」, 「첫날밤권주가」, 「팽이치기소리」가 있다. 이 중 도구경기요인 「장기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로다 장기로다 문무간에 무좌하니
호흥넉허 장기로다 청단홍단 백홍단에
금실비단 초록단에 지알상에 지알봉에
네구영 목두상가 두쪽아리 판이로다
그판에 누구누구 실엇노 어어식이 부식이
삼배로 재갈초세 아시랭이 다실었네

〈장기소리〉(『조선구전문요집』)

3) 언어유희요

언어유희요는 사설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부르는 것으로, 사설의 구성과 내용이 놀이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과 구연행위가 놀이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포항 지역의 언어유희요에는 말엮기요, 말잇기요, 소리흥내내기요가 있다. 말엮기요는 특정한 언어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에 맞는 언어 요소가 되풀이되도록 사설을 구성한 노래를 말하는데, 「꼬꾸랑할머니」가 대표적인 노래이다. 말잇기요는 앞말의 끝에 나온 어휘를 문제삼아 말을 이어가는 방식의 동요이다. 「저건너 딘영감」과 「질로질로 가다가」가 대표적인 노래이다. 소리흥내내기요는 특정 동물의 울음소리를 흥내내어 부르는 노래로 「매미흥내내는소리」, 「산비둘기흥내내는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말잇기요인 「질로질로 가다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로질로 가다가 다갈한나 조았네
조은다갈 남주까 낮이나 치이지
치인낮을 남주까 풀이나 비지
비인꼴로 남주까 말이나 믹이지
믹인말 남주까 각시나 태지
탠각시 남주까 나캉대꼬 사지

〈질로질로 가다가〉(구룡포읍 석병리)

4) 놀림유희요

놀림유희요는 아이들이 재미삼아 다른 사람을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로 인물놀림요와 신체놀림요가 있다. 인물놀림요는 인물의 모습이나 신분 등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노래로 「가마탄사람놀리는소리」, 「여자아이놀리는소리」, 「영감놀리는소리」, 「등집장수놀리는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체놀림요는 보편적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신체 부위를 놀리는 노래이다.

「앞니빠진아이놀리는소리」, 「봉사놀리는소리」, 「곰보놀리는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신체놀림요인 「앞니빠진아이놀리는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니빠진 갈가지 앞도랑에 가지마라 뽕어새끼 놀랜다
 앞니빠진 갈가지 앞도랑에 가지마라 뽕어새끼 놀랜다

〈앞니 빠진 아이 놀리는 소리〉(홍해읍 북송리)

5) 자연물유희요

자연물유희요는 동물, 식물, 천체, 기후 그리고 인체 등을 놀이적 태도로 대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대부분 동요다. 채집요(採集謠), 조종요(操縱謠), 조절요(調節謠), 완상요(玩賞謠)로 나누어진다. 채집요는 동물을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잡기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잠자리, 매미, 이 등과 같은 곤충이 중심을 이룬다.

「잠자리잡는소리」, 「반딧불잡는소리」, 「이잡는소리」가 대표적인 노래이다. 조종요는 아이들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을 잡아 놀면서 부르는 노래로 「방아개비부리는소리」, 「달팽이부리는소리」가 대표적인 노래다. 그러므로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다.

포항 지역의 조절요에는 「물터는소리」, 「꺾물빼는소리」, 「비야비야」, 「해야해야」, 「바람아바람아」, 「뱀쫓는소리」, 「술개쫓는소리」, 「대추소리」, 「개야개야」 등이 있다.

완상요는 자연물을 관찰하고 흥미를 느낀 사항을 표현하여 부르는 노래로 포항지역에서는 「달소리」, 「별헤는소리」, 「별과달헤는소리」, 「해와달헤는소리」, 「참꽃소리」, 「호박소리」, 「봄배추소리」, 「황새소리」, 「또닥새소리」, 「나비나비」, 「제비제비」 등이 있다. 이 중 조종요인 「달팽이부리는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마 하마 춤초라
 너거 할애비 개똥발에 장구치며 논다
 하마 하마 춤초라 두손 모아 춤초라
 너거 할애비 개똥발에 장구치며 논다
 하마 하마 춤초라
 요뿔내고 조뿔내고 잘도잘도 춤초라

〈달팽이부리는소리〉(청하면 서정리)

6) 조형유희요

조형유희요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작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조형유희요는 보통 그리기요와 만들기요로 나누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인 그리기요는 포함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고 만들기요만 전한다.

만들기요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모래떨구는소리」, 「풀각시만드는소리」, 「돌다듬는소리」, 「소꿉장난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모래떨구는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바제바 똥노라 월포제비 똥는다
제바제바 똥노라 월포제비 똥는다

〈모래떨구는소리〉(청하면 월포리)

7) 가창유희요

가창유희요는 노래 자체를 즐기기 위해 부르는, 이른바 비기능요를 말하는데, 창곡 중심유희요와 사설중심유희요가 있다. 창곡중심유희요는 가창을 통해 즐기게 되는 분위기와 정서의 기본적 틀이 창곡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노래로 「아리랑타령」, 「뱃노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설중심유희요는 노래가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사설의 내용으로부터 얻는 노래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설이 길다. 이에 「병풍소리」, 「뽕덕이소리」, 「시매타령」, 「땡기소리」, 「담배소리」, 「장타령」, 「과부소리」, 「추모요」, 「생금생금생가락지」 등이 있다. 「베틀소리」나 「성주풀이소리」처럼 노동요나 의식요 중에서도 본래의 기능을 잃고 사설중심유희요로 불리는 것이 있다. 이 중 사설 중심유희요인 「시매타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엄동설한 떠난임애이
맹년 춘삼월되어 꽃이피고 잎이피면 오실랑가
쟁쟁우는 애린자식 애비블러 어미간장 다늑는다
전장터에 가신님은 제사때나 오실랑가
아이고답답 내신새애이

〈시매타령(부분)〉(죽장면 가사리)

제3절 세시풍속

1. 정월

1) 설날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명절 중의 명절이다. 설날은 예로부터 신일(慎日)이라 했는데, 일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날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설빔으로 옷을 갈아입고, 차례를 지낸다. 또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으로 새해 인사를 교환한다.

설날의 세찬(歲饌) 중에는 떡국이 가장 대표적이며, 여러 종류의 강정을 만들어 먹는다. 그 밖에 정초에 행해지는 풍속에는 복조리 사기, 신발 훑쳐 간다는 귀신을 쫓는 ‘야광이 쫓기’, 쥐를 없애기 위해 첫 쥐날[子曰]에 빈 방아를 찧는 ‘빈방아 찧기’, 부잣집 흙을 훑쳐 부뚜막에 바르면 부잣집의 복이 따라온다고 해서 행하던 ‘복토 훑치기’ 등이 있었으나 없어진 지 오래다.

정초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에는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이 있어 왔으나, 이 중 널뛰기는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연날리기와 윷놀이는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1980년대에는 집집마다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는 풍속이 생겼다.

설날은 일제시대 이래 정부의 ‘신정(新正) 쇠기’ 정책에 밀려 ‘구정(舊正)’으로 전락하면서 한 때 풍속의 혼란이 생기고 명절 분위기가 퇴색된 적이 있으나, 1988년에 공휴일인 ‘민속의 날’로 지정되고, 다시 1989년부터 ‘설날’로 명칭을 되찾음은 물론 이 날을 전후로 사흘 연휴가 되면서 추석과 더불어 우리 민족 2대 명절로 자리 잡았다.

2) 정월 대보름

정월 15일은 전통적으로 큰 명절이었다. 이 날에는 약밥이나 오곡밥을 해 먹고, 귀밝이술을 마시며, 동제를 지내고, 달맞이를 하는 등 갖가지 풍속이 이어왔다. 귀밝이술은 이 날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귓병을 앓지 않고 밝아지며, 한 해 동안 좋은 것을 듣는다고 하여 마시는 술인데, 명이주(明耳酒)라고도 한다. 지금도 포항의 일부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다.

더위팔기는 보름날 아침에 일어나 해가 뜨기 전에 동쪽으로 뺀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 개의 목에 걸어 주고, 왼새끼를 꼬아 소의 목에 매어 주면서 더위를 먹지 말라 이른다. 마을에서는 벗이나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사람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라”라며 한 해 동안 더위를 먹지 않기를 기원하는 풍속인데, 없어진 지 오래다.

포항 지방의 많은 마을에서 이 날 새벽, 부락의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동제를 지내며, 마을 단위로 민속놀이를 하는 곳이 많다.

보름날의 절정은 달맞이에 있다. 달이 뜨기 전 뒷동산에 올라가서 생솔가지를 꺾어 모아 불을 지르고 연기를 피우는데, 이를 달집태우기라 한다. 달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달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달을 향해 일제히 큰절을 하며 각자의 소원을 기원한다. 달집태우기는 산불의 위험에 따른 금지 조치로 1970년대 이래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복원되고 있는데, 해도동 형산강 둔치,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흥해읍 북송리 들판이 대표적인 경우다.

보름에 행해지는 민속놀이로 지신밟기를 빼놓을 수 없다. 지신밟기는 집안의 무사안녕과 복을 빌어 주기 위해 마을의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울리고 자신을 밟아 주는 의식으로 지금도 잘 전승되고 있다.

대보름의 민속놀이로 이 밖에 쥐불놀이와 줄다리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쥐불놀이는 아직 상당수 마을의 어린이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며, 줄다리기는 송라면 화진리 이진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3) 입춘

입춘은 ‘봄빛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24절후의 첫째 절후다. 양력으로는 2월 4일 경이며, 음력으로는 빠르면 선달에 있을 때도 있으나, 주로 정월에 있다.

입춘에는 “立春大吉 建陽多慶”, “開門萬福來 閉門三災厄” 등의 춘축(春祝)을 써서 기둥에다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는 입춘과 관련된 풍습은 거의 소멸된 상태다.

4) 양력 세시

(1) 양력설

양력 1월 1일을 음력설에 대비하여 ‘양력설’이라 한다. ‘신정(新正)’이라 하기도 한다. 1895년 음력 9월 9일에 고종이 태양력 사용 조칙을 내림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태양력 사용이 공식화되었다. 이때부터 양력 1월 1일을 설로 삼고자 하는 행정기관과 민족의 고유한 전통에 입각한 음력 1월 1일을 설로 삼고자 하는 민중의 대립이 시작되어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정이 강압적으로 장려되었고, 광복 후에도 1988까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신정을 권장함으로써 ‘이중과세(二重過歲)’ 논란 속에 양력설을 쇠는 가정, 음력설을 쇠는 가정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양력은 ‘설’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한 해가 시작 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대신 이 날 새벽에 뜨는 해를 보면 재수가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맞이를 하는 풍습이 생겼다. 12월 31일 오후부터 새해 일출을 보려고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1월 1일 아침까지 포항 지역의 해안도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는다.

특히 1999년 1월 1일에 대보면 등대박물관 옆에서 제1회 영일만 해맞이 축제가 열렸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행사인 한민족해맞이축제가 열리게 됨에 따라 이 지역이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았다.

(2) 시무식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거행하는 의식으로 보통 1월 2일 아침에 열린다. 한 해의 업무를 마치는 것을 기념하는 종무식에 대비된다.

(3) 연하장

새해를 축하하는 엽서나 카드를 말하는데, 크리스마스카드와 겹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의 후의에 감사를 표하면서 새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적어 우편으로 주고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전자통신 매체의 발달로 카드를 이용한 연하장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연하장과 휴대전화기 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새해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2. 이 월

1) 영등날

영등날(음력 2월 1일)이라 함은 하늘에 사는 영등 할머니를 모시는 날이다. 바람과 물과 불을 관장하는 신인 영등 할머니는 이 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20일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는 반드시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시샘을 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 큰 피해를 준다고 한다. 또 이 기간을 내월(來月)이라 하여 혼인을 피하는 풍습이 있다.

이 날 아침 일찍 새 바가지에 맑은 물을 담아 장독대, 광, 부엌에 올려놓고 복을 빈다. 또, 오곡밥과 나물을 장만하여 부엌에 차리고 식구 수에 맞춰 소지(燒紙)를 만들

어 불을 붙여 하늘로 띄우면서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이 때 장만한 나물과 밥을 짚으로 만든 오제기에 싸서 울타리에 얹어 두고 까치가 먹게 하였다. 그리고 묵은 썩으로 썩떡을 만들어 먹으며, 썩떡을 짚단으로 싸서 광에 넣어 두기도 하였는데, 이를 두지떡이라 하였다.

이월 명절을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 겨울을 쉬고 이월 명절이 지나면 한 해의 고된 농사가 시작되므로 머슴을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머슴으로 하여금 즐겁게 놀고 쉬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한 톨 내는데, 이 때 머슴들은 풍물을 울리면서 닷새 동안 즐겼다고 한다.

이월 초하룻날은 또 콩을 볶는 날인데, 솥에 콩을 넣고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굼병이 볶자”하면서 주걱으로 젓는다. 볶은 콩은 먹기도 하지만 집 안팎에 뿌리기도 하였다. 이 날 콩을 볶는 주술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농사에 해를 주는 새, 쥐, 벌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월 초하룻날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기도 한데, 집안의 거미줄도 걷어내고, 가축 우리의 두엄도 걷어낸다. 이월이 지나 날씨가 풀리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내 각시라는 벌레가 생기므로 이 벌레를 막기 위하여 “香郎閻氏速去千里”라는 한자문구를 적어서 벽이나 기둥, 서까래에 거꾸로 붙이기도 하였다.

현재 포항 지방에서의 이월 명절을 집집마다 썩떡을 해 먹는 형태로 남아 있으며, 어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날을 중히 여긴다. 이 날 기계면 화대리에서는 숲뒤 마을과 방축 마을로 나뉘어 즐다리기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다.

2) 양력 세시

(1)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Balentine Day)는 양력 2월 14일이다. 원래 서기 269년 로마의 사제(司祭) 성 발렌타인의 순교를 기념하여 유럽에서 행해지던 제일(祭日)로, 이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의 보내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형태로 정착되었으며, 포항 지방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때문에 하루 전날인 2월 13일에는 초콜릿을 판매하는 상점이 크게 붐빈다.

(2) 졸업식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그 동안의 배움을 정리하고 상급학교 또는 사회로 인재를 배출해 내는 마무리 의식을 말한다. 졸업식은 보통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

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내빈 축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졸업의 노래 제창,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송사와 답사 대신 음악 연주나 공연을 넣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도 있다.

3. 삼 월

1) 삼짇날

음력 3월 3일을 말한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날씨가 온화해지며, 산과 들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사람들은 야외에 나가 하루를 즐긴다. 특히 만발한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花煎)을 지져 먹으며 노는데, 이 놀이를 화전놀이라 한다.

지금 우리 지방 농촌에서는 마을 사람들끼리 관광 버스를 전세 내어 여행을 떠나는 풍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2) 한식()

한식은 동지(冬至) 후 105일째가 되는 날로 양력 4월 5일경이 되는데, 청명(淸明)이나 식목일과 겹치는 수가 많다. 이 날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하고, 무덤에 잔디를 입히는 등 무덤 손질을 한다. 그리고 이 날은 예로부터 더운밥을 먹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 한다. 현재 우리 지방에서의 한식은 무덤을 손질하는 풍습만 남아 있을 뿐, 그 외의 풍습은 거의 사라졌다.

3) 양력 세시

(1) 삼일절

양력 3월 1일은 3.1운동을 기념하는 삼일절이다. 관공서와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여 1919년 3월에 있는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기린다. 1919년 청하장터 만세사건을 주도한 의사들의 고향인 송라면 대전1리 속칭 ‘만세촌’에서는 2007년부터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삼일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 입학식

3월 2~5일에 각급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맞는 입학식을 거행한다. 학부모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입학식은 보통 신입생 선서, 선후배와의 상견례, 학교장 환영사, 축사, 교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3)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2월 14일)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14일에는 발렌타인데이에 여자로부터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여자에게 보답하는 의미의 선물을 하는 날인 화이트데이(White Day)이다. 1990년대 들어와 생긴 풍습이며, 이 날 우리 지방의 초·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사탕을 준비하였다가 여학생들에게 선물한다.

(4) 고로쇠물 마시기

양력 3월에 들어서면 포항 지역 산간 지방에서는 몸에 좋은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하여 마시는 풍습이 있다. 2002년부터는 3월 중순에 고로쇠나무가 많은 죽장면에서 죽장고로쇠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4. 사 월

1) 초파일

음력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흔히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하며, 불탄일(佛誕日)이라고도 한다. 이 날 각 사찰에서는 큰 재(齋)를 지내고 제등행렬(提燈行列)을 벌이는 등 갖가지 행사를 베푼다. 또 불교 신도들은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집안 식구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연등을 단다.

5. 오 월

1) 단오

음력 5월 5일은 단옷날이다. 전통적으로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이며, 수릿날 또는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즐겁게 노는 날이었다. 남자들은 씨름대회를 열었고, 여자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를 깎아 비녀를 지르고 천궁잎을 꽂은 머리로 그네를 뛰면서 놀았다.

현재 포항 지방에서 단오와 관련된 풍습은 부녀자들이 머리에 천궁잎을 꽂는 풍습으로만 남아 있을 뿐 다른 풍습은 찾아보기 힘든 편인데, 청하면 미남리에 마을 단위로 그네뛰기 등의 행사를 전승하고 있다. 단오 민속을 계승하기 위해 포항문화원에서는 이 날 단오민속축제를 열고 있다.

2) 양력 세시

(1)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방정환(方定煥)의 지도 아래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를 중심으로 5월 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으로 출발하여 8.15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날짜를 5월 5일로 바꾸어 기념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핵가족사회가 되면서 이 날은 특별히 부모들이 놀이공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린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 등을 선물해주는 풍습으로 정착되었다.

(2) 어버이날

매년 5월 8일이며, 공휴일은 아니다.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지정, 기념해오다가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제정·공포되면서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되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거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한편 고향에 계신 부모를 찾아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3) 스승의 날

1964년 4월 청소년적십자단원 대표들이 전북 전주에 모여 학생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날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체육대회 등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4) 이팝축제

흥해읍 옥성리 향교산에는 경상북도기념물 제21호인 흥해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매년 5월 10일경에 만개하여 절정을 이룬다. 1991년부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팝청년회에서는 향교산에서 경로잔치를 겸한 이팝축제를 열고 있다.

(5) 기북산나물축제

산간 지방인 기북면에는 예부터 봄철에 산나물이 많이 났는데, 2000년부터 매년 기북면 용기리 소재 기계중학교기북분교 운동장에서 특산물 축제인 기북산나물축제를 열고 있다.

(6) 부학축제

양학동 주민들이 1999년부터 매년 5월말에 양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고 있는 주민 화합 한마당을 일컫는 명칭이다.

6. 유 월

1) 유두()

유두는 음력 6월 15일을 말하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인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의 약칭이다. 이 날 사람들은 햇과일과 밀가루떡을 장만하여 조상께 제를 올리고, 음식을 장만하여 맑은 시내와 산간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며 하루를 즐겼는데, 이는 액을 면하고 더위를 잊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에 유두와 관련된 풍습은 거의 없어진 상태다.

2) 삼복(三伏)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는데, 24절기 중 소서(小暑)를 지나고 나서 첫 경일(庚日)이 초복, 둘째 경일이 중복, 셋째 경일이 말복이다. 만일 셋째 경일 에 입추(立秋)가 지나지 않으면 넷째 경일이 말복이 되며, 이런 경우를 흔히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이 무렵은 일 년 중 가장 더울 때다. 각 가정에서는 수박을 사 먹으며,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어 더위에 지친 몸에 원기를 돋워 준다.

3) 양력 세시

(1) 현충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매년 6월 6일로이며,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날 가정에서는 조기(弔旗)를 게양하며, 관공서에서는 기념식을 한다. 포항시에서는 덕수동 산4-3에 위치한 충혼탑에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노거수회에서 2000년부터 해마다 이 날 오후 4시, 임란 전적지인 송라면 화진리 화진 해수욕장 남단 썩은송이내고랑에서 임란화산불호국영령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

(2) 장기산딸기축제

산딸기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장기면 일대의 산딸기 홍보를 위한 장기산딸기축제를 2008년부터 매년 6월초에 장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7. 칠 월

1) 칠석(七夕)

칠석(음력 7월 7일)은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에 의거한 날로 예로부터 여러 가지 풍속이 있어 왔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여름 장마 뒤의 옷가지와 책을 햇볕에 쪼여 말렸는데, 이것을 썬서폭서(曬書曝書)라 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칠석차례[七夕茶禮]’라 하여 약수터를 찾아 물을 맞으며 샘에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 흥해읍 덕성리 장성 마을의 ‘장성 수레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금은 마을 단위로 버스를 대절하여 약수탕을 찾는 풍습이 일반화되어 있다. 민간 단체인 노거수회에서는 매년 이 날 오후에 ‘칠석 만남의 날’ 행사를 갖고, 회원들이 도지정 보호수인 마북느티나무에 막걸리주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2)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을 말하며, 백중(百種) 또는 중원절(中元節)이라고도 한다. 이 날 사람들은 약수터를 찾기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또 농부들은 이 날 여름 농사를 마치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 백중과 관련된 풍습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3) 양력 세시

(1) 피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를 피서철이라 한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3일에서 7일 정도 휴가를 내어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 피서를 즐긴다. 북부, 월포, 칠포, 화진, 도구, 구룡포 등 포항 지역의 각 해수욕장과 내연산, 죽장, 하옥 등 경치가 수려한 계곡에는 수많은 피서 인파가 몰려드는데, 이로 인해 7번 국도를 비롯한 피서지 인근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8. 팔 월

1) 벌초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아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는 일을 말한다. 날씨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가족과 친지가 모이기 쉬운, 추석을 1~2주 앞둔 일요일

일에 한다. 1980년대까지는 풀을 일일이 낫으로 뺐으나, 1990년대 예취기가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문중에서 예취기로 베고 있다.

2) 추석

음력 8월 15일을 말하며, 한가윗날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한다. 신라시대의 가배로부터 유래한 이 날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사흘 연휴가 되면서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로 각광받고 있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새 옷을 입고 객지로부터 귀향한 일가친척들과 함께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을 빚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며, 하루를 즐겁게 논다. 해안 마을에서는 부녀자들이 월월이청청을 하였으나 일제말에 중단되었으며, 장기면 모포리에서는 줄다리기가 전승되고 있다.

3) 양력 세시

(1) 덕동서레치

서레치는 흔히 호미씻이라고도 한다. 한 해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인 세벌 김매기가 끝난 직후인 칠석(음7.7)이나 백중(음7.15)에는 농민들이 농사일의 노고를 달래면서 놀이판을 벌인다. 이 날 땅 주인들은 농군들의 노고를 위로할 겸 돈을 내어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풍물꾼들은 집집마다 풍물을 치고 다니면서 하루를 즐겁게 논다.

‘호미씻이’라는 말은 한 해 농사 끝에 흙 묻은 호미를 씻어둔다는 뜻으로 힘든 농사가 다 끝났음을 의미한다. 기북면 오덕1리(덕동)의 ‘씨레치’라는 명칭은 ‘씨레를 씻어둔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로 보인다.

호미씻이는 농민들이 휴한기에 벌이는 농민들만의 축제로서 큰 명절의 하나였으나 두레가 소멸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날짜도 원래는 칠석이나 백중에 해 왔으나, 광복 후 백중을 전후한 국경일인 양력 8월 15일(광복절)로 정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9. 구 월

1) 중앙절

음력 9월 9일을 중앙절(重陽節) 또는 중구일(重九日)이라 한다. ‘구(九)’자를 양수(陽數)의 극이라 하는데, 이러한 양기(陽氣)의 존중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날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산과 들고 나가 하루를 즐겼다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에서 중앙절과 관련되어 전하는 풍습은 거의 없다.

10. 시 월

1) 상달제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한다. 1년 중 가장 높은 달이라는 것이다. 초순에 술과 떡을 장만하여 성주, 삼신, 용신 등 집안의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 때 떡을 해 먹는 풍속이 아직 우리 지방에 전해지고 있다.

2) 묘사()

묘사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이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5대 이상의 묘소에 가서 제사 지내는 풍속으로, 시사(時祀)라고도 하며, 아직도 우리 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풍습이다.

3) 양력 세시

(1) 백일장

양력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포항 지역의 각급 학교나 문학단체에서는 백일장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에게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 있다.

(2) 체육대회

시월에는 날씨가 화창하고 서늘하여 운동하기에 좋다. 초등학교에서는 이 달에 일제히 가을운동회를 개최하며, 각급 학교 동창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도 체육대회를 열어 체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단합을 꾀한다.

11. 동짓달

1) 동지(冬至)

24절기 중의 하나로 양력 12월 22일경이며,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이 날에 연유하여 11월을 동짓달이라 한다.

우리 지방 각 가정에서는 이 날 찹쌀로 단자를 해 넣은(이것을 ‘새알심’이라 한다) 팔죽을 쑤어 먹는다. 쑤 팔죽을 방, 마루, 광 같은 데 한 그릇씩 떠놓으며, 잡귀를 쫓기 위해 대문이나 벽에 뿌리는 풍속도 전한다.

2) 양력 세시

(1) 뽀뽀로데이

1994년 11월 11일, 부산과 경남 지역의 여중고생들이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뽀뽀로’라는 과자를 주고받은 데서 유래한다. 11월 11일은 작대기 4개로 구성돼 있는데, 숫자 ‘1’이 유달리 길쭉한 과자인 ‘뽀뽀로’와 모양이 닮은 데서 착안된 기념일이다. 1990년 후반 들어 상점에서 ‘뽀뽀로데이’를 내걸고 뽀뽀로데이 상품을 별도로 내놓으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12. 설 달

1) 설달그믐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제석(除夕) 또는 ‘작은 설’이라고 한다. 이 날 객지에 나가 있는 일가친척들이 설을 쇠기 위하여 귀향을 한다. 민간에서는 이 날을 수세(守歲)라 하여 가족들이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는 속설이 있어 자지 않고 밤을 세며, 집안 곳곳에 불을 밝혀 잡귀가 범하지 못하게 한다.

한 해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거래를 청산하는 경제적 풍속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 양력 세시

(1) 성탄절()

양력 12월 25일을 말하며, 예수의 탄신을 축하하는 날로, 흔히 크리스마스(Christmas)라 한다. 8.15광복 후 새로운 세시풍속으로 굳어졌다. 이 날 각 교회와 성당에서는 성탄(聖誕)을 축하하는 갖가지 행사를 벌인다.

이 날을 전후하여 곳곳에 성탄목(聖誕木, 크리스마스트리)이 장식되고, 사람들은 성탄찬미가(聖誕讚美歌, 크리스마스 캐럴)를 즐겨 들으며, 좋아하는 사람끼리 크리스마스카드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성탄 하루 전인 24일 저녁을 흔히 ‘크리스마스이브(Christmas Eve)’라 하는데, 이때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노는 풍습이 있다.

(2) 송년회

1990년대 이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각 기관·단체별로 송년회를 개최하는 것이 풍습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다. 따라서 12월 한 달 동안 포항 지역의 각 연회장이나 식당은 송년회 손님 받기에 바쁘다.

(3) 종무식

1월 2일의 시무식과 상대되는 날로 12월 31일에 행한다. 직장에서 한 해의 업무를 종결짓는 의미로 종무식(終務式)이란 명칭을 붙여 간단한 의식을 행하는데, 1년 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우수 직원을 표창하기도 한다.

13. 윤 달

윤달은 평년보다 한 달 더 있는 달로 ‘공달’이라고도 한다. 윤달이 있는 해를 윤년(閏年)이라고 하며, 이 해에는 열두 달 가운데 어느 한 달이 겹치게 되는데, 4월이 겹칠 경우 겹친 달은 특히 ‘윤사월’이라 한다.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없다고 했다.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탈이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떤 일을 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민속적인 의미를 지닌 달이다.

윤달에는 집을 수리하거나 혼례를 많이 치른다. 또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수의(壽衣)를 만들기도 한다. 그 밖에 이장(移葬)을 하는 등 부정과 동티를 두려워하는 일을 많이 한다.

제4절 관혼상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고유의 풍습을 중히 여기고 예(禮)를 숭상하였다. 관혼상제(冠婚喪祭)란 우리나라의 사례(四禮)를 말하는 것으로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를 통칭하는 말이다.

1. 관례

관례는 남자의 연령이 15세에서 20세에 이르렀을 때 상투를 올리고 갓이나 초립(草笠)을 쓰는 의식을 말한다. 미리 날짜를 정하여 가관식(加冠式)을 행하고 식이 끝나면 재관자(載冠者)는 먼저 사당에 들어가 봉고삼배((奉告三拜)를 한 다음, 부모·친척·노인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성인(成人)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 갓을 씌우는 의식인 관례는 이미 오래 전에 민속에서 사라졌다. 그 시기는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때 내려진 단발령으로 머리를 땅지 않고 상투를 떼어 버림으로써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2. 혼례

혼례는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례다. 전통 혼례는 의혼(議婚), 서신 왕래, 혼례식, 신행 등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 치러졌다.

1) 의혼

혼인 적령기에 이른 자식을 가진 집에서 혼처를 구하여 혼인을 성사시키는 절차다. 요즘 주류를 이루는 연애결혼과는 달리 전통 혼례에서는 중매결혼을 했으므로 중매쟁이(중신애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신애비에 의해 일단 중매가 들어오면 양가에서는 상대의 집안 사정에 대해 탐문하기 시작하고, 궁합을 본다든지 하여 당사자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본다. 탐문이 끝나면 신랑 측에서 신부 집으로 선을 보러 간다. 1970년대 이후에는 ‘맞선’이라 하여 신부 집 대신 다방 등 제3의 장소에서 선을 보는 풍속으로 바뀌었다.

2) 서신 왕래

일단 성혼(成婚)이 되면 양가에서 서신이 왕래된다. 먼저 신랑 집에서 사성(四星)을 보내고, 사성을 받은 신부 집에서는 택일(擇日)을 하여 신랑 집에 보낸다.

혼례일 전날에는 함(函)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낸다. 함에는 제일 먼저 혼서지(婚書紙)를 넣고, 그 뒤에 신부 예복을 넣은 다음 청홍포를 덮고 그 위에 수수깡 3개를 넣는다. 그 수수깡 양 끝에 고치(누에고치를 풀어 솜같이 만든 것)로 감는다. 그리고 고추 3개를 넣는다.

3) 혼례식

혼례의 전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결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통 혼례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올린다.

혼례의 절차는 마을의 유식한 노인이 부르는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되며, 크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례(親迎禮), 기러기를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전안례(奠雁禮), 신랑·신부가 맞절하는 교배례(交拜禮), 신랑·신부가 술잔을 주고받는 합근례(合卺禮)로 진행된다.

1960년대 들어 신식 결혼식이 뿌리를 내리면서 예식문화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포항지역 최초의 예식장은 1960년대 말 북구 덕수동에서 문을 연 현대예식장이었다. 예식장에서의 혼례식순은 일반적으로 신랑·신부 입장, 신랑·신부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주례사, 신랑·신부 행진 순이다.

4) 첫날밤과 신랑 달기

혼례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신부 집에서 신랑과 신부는 첫날밤을 맞는다. 신방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사람의 의가 좋도록 단물상을 들여보낸다.

신랑 신부는 간단히 요기를 한 후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기면 잠자리에 드는데, 이 때 ‘신방 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이 신방의 문을 뚫어 구경하기도 한다.

5) 신행()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媿家)로 가는 것을 말한다. 시가에 도착하면 시부모를 비롯한 시가 어른들을 뵙는 의례를 행한다.

신행 온 지 3일 만에 친정을 다녀오며, 친정을 다녀오는 일이 끝나야 모든 혼례 절차가 끝난다.

3. 상례

상례(喪禮)란 통과의례의 마지막 관문으로 임종(臨終)에서 대상(大喪)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을 임종, 습렴(襲殮)에서 성복제(成服祭)까지, 치장(治葬), 그리고 반혼(返魂)에서 대상까지 네 등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종

임종이 가까워 오면 안채로 모시어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이렛목에 모신다. 자손들이 모여 임종을 지켜보되, 솜을 코에다 얹는 속광(屬纊)을 하며 운명을 지켜 본다. 운명이 확인되면 시신을 윗목으로 옮겨 머리가 동쪽 또는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시신이 굳기 전에 손을 포개어 배 위에 올려놓고 묶은 다음, 발은 벽에 대거나 나무 판을 에워 바로 서게 괴어 놓고 엄지발가락을 묶어 둔다. 이를 수시(收屍)라 한다. 수시가 끝나면 상주는 몸에 지녔던 장식품들을 모두 떼고 머리를 풀고 흰 두루마기를 입히되 부친상이면 왼팔을, 모친상이면 오른팔을 끼지 않는 좌단우단(左袒右袒)의 격식을 갖추고 시신 앞에 엎드린다. 밖에서는 떠나는 영혼을 부르는 고복(梟復)을 행한다. 근래에 행해지는 고복은 마당에 서서 지붕을 보고 오른손으로 죽은 사람의 속적삼을 잡고 왼편으로 흔들면서 그의 주소와 성명을 말한 뒤 “복복복”하거나 그냥 세 번 “복복복”하기만 하거나 “돌아다보고 옷이나 가져가시오.”하고 외치기도 한다. 고복이 끝나면 마당에 사자상(使者床)을 차린다. 사자상에 밥 세 그릇, 짚신 세 켤레, 돈 세 냥을 놓고 상제는 재배하고 곡을 한다. 이어 의식을 잘 아는 마을 노인이나 집안 어른 중에서 한 사람이 호상(護喪)이 되어 모든 일을 지휘한다.

2) 습렴

시신을 목욕시키고 묶어 관에 넣는 차례로, 이에는 습(襲)과 소렴(小殮), 대렴(大斂)이 있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고, 소렴은 시신에 수의(壽衣)을 입히고 임시로 간단히 묶어 놓는 것이다. 대렴은 시신을 단단히 묶어 입관하는 것을 말한다. 입관이 끝나면 혼백(魂魄)을 만들어 영좌(靈座)에 안치하고 명정(銘旌)을 설치한 다음 상주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소복을 벗고, 상복을 입는다. 상주들은 각기 자기 처지에 맞는 상복을 입고, 명정을 앞세우고 영좌 앞에 제수(祭需)를 차리고 잔을 올리며 절을 하는데, 이를 성복제(成服祭)라 한다. 성복 후에는 정식으로 조객(弔客)을 맞이한다.

3) 장례

장례는 보통 운명 후 3일 만에 지낸다. 장례는 출상(出喪) 시각에 맞춰 발인제(發靱祭)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발인제는 상여 위에 관을 놓고 지낸다. 발인제가 끝나면 장지로 향한다. 장례 행렬은 맨 앞에 명정이 서고, 다음에 공포(功布), 혼교(魂轎), 영여(靈輿), 상여, 상제의 순서이며, 맨 끝에 문상객이 따른다. 상여가 지나는 도중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집, 또는 직장이 있으면 이곳에서 떠나는 이를 위로하기 위해 상여 앞에 상을 차리고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과물을 차리고 문상객의 문상을 받는다. 광(壙) 파는 일이 끝나면 시간에 맞추어 하관(下棺)을 한다. 하관이 끝나면 달구질을 한 다음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평토제를 끝으로 상주는 영좌와 혼백을 모시고 오던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4) 흥제

흥제란 장례를 마친 후 혼백이 집에 와서 처음 올리는 반혼제(返魂祭)로부터 대상(大喪)을 마친 탈상(脫喪)까지를 말한다. 반혼제는 시신을 묻고 혼백만을 모시고 지내는 첫 제사로 보통 초우제를 겸한다. 우제(虞祭)란 시신을 보내고 영혼을 맞이하여 지내는 제사로 초우제, 재우제(再虞祭), 삼우제(三虞祭)가 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람의 일생을 거치는 의례는 완전히 끝난다.

4. 제례

제례는 조상에 대한 제의(祭儀)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 절사(節祀)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내용이나 절차는 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 기제

기제는 탈상을 지낸 다음 해부터 첫 새벽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보통 4대 봉사(四代奉祀)라 하여 고조(高祖)까지만 지낸다. 기제의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다.

- (1) 강신(降神) : 제주가 꿇어앉아 분향을 하면 집사가 제주 오른쪽에 꿇어앉아 술을 따른다. 세주는 술잔을 향로 위에 세 바퀴 돌린 다음 모사(茅沙) 위에 붓고 재배한다.
- (2) 참신(參神) : 제관이 차례로 서서 재배한다.
- (3) 초헌(初獻) : 초헌관이 술잔을 들면 집사가 술을 따른다. 집사가 헌관으로부터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놓고 젓가락을 건포 위에 걸치고, 메그릇과 국그릇의 뚜껑을 열어 놓는다. 축관(祝官)이 헌관의 왼편에 앉아 축문을 읽는다. 그 후 헌관은 재배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 (4) 아헌(亞獻) : 아헌은 주부(主婦)가 거행하며, 주부가 없으며 아우나 근친이 하는데, 절차는 초헌과 같다.
- (5) 종헌(終獻) : 종헌은 가까운 친척이 하며, 절차는 아헌과 같다.
- (6) 삽시(插匙) : 첨작(添酌)을 한 후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제주가 재배한다.
- (7) 함문(闔門) : 제관들은 제청 밖으로 나오며, 문을 닫고 밖에서 꿇어앉아 한참 기다린다.
- (8) 계문(啓門) : 축관이 세 번 기침을 하고 문을 열면 제관을 제 자리에 가서 선다.
- (9) 헌다(獻茶) : 메와 국을 물리고 다(茶, 송농)를 메그릇 자리에 올린다.
- (10) 사신(辭神) : 축문과 지방을 불사르고 철상을 한다.

2) 묘제

묘제(墓祭)는 기제를 지내지 않는 고조 이전의 선조에게 산소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묘사(墓祀),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대개 상달에 지낸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많은 햇곡을 거두게 된 것이 오로지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햇곡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지내는 것이다. 묘제를 지낼 때 선조의 산소를 보호해 준다고 믿는 산신에게 산신제도 지낸다. 묘제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제와 같으나, 보통 기제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어 있다.

3) 절사

절사(節祀)는 설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보통 ‘명절 제사’라고 부른다.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고조까지 지낸다. 명절 아침에 지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제사의 절차는 기제와 거의 같다.

제5절 민속놀이

1. 포항지역의 민속놀이 전승현황

민속놀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전해지는 놀이를 말한다. 예로부터 포항 지역에는 다양한 민속놀이가 있었다. 포항 지역의 민속놀이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계절성과 내륙과 해안 지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역성이 있고, 또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놀이가 발달돼 있다는 점도 특징의 하나다.

계절성을 보이는 민속놀이에는 대보름놀이, 단오놀이, 연날리기, 윷놀이 등이 있는데, 민속놀이의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성을 보이는 것으로는 내륙 지방에 전해지는 지계상여놀이와 해안 지방에 전해지는 여성들의 민속놀이인 월월이칭칭이나 앉은줄다리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전통 민속놀이에는 짚치기나 줄다리기, 월월이칭칭 등과 같이 일제 침략기에 일제의 탄압을 받아 이미 전승이 단절될 것이 많고, 그 밖의 것들도 197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에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멸된 상태다. 대신 고무줄놀이, 줄넘기, 술래잡기, 공기놀이 등 일제 침략기에 일본에서 들어와 정착한 것들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와 1970년대 말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고스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특성과 재미 때문에 20년 가까이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에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노래방이 크게 발달하여 친구, 직장동료, 가족·친지 누구나 즐기는 놀이의 하나로 정착됐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 게임이 신종 놀이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포항 지방의 민속놀이 중 가장 대표적인 줄다리기, 월월이칭칭, 지계상여놀이를 그 유래와 전승 실태, 놀이 방법 등의 순서로 정리하고자 한다.

2. 모포 줄다리기

1) 유래

매년 추석에 모포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 2리(칠전 마을)는 바닷가의 조그마한 마을이다. 줄다리기가 원래 뇌성산 밑에 있는 밭에서 행해졌으나,

근래에 바닷가 백사장으로 옮겨졌으며, 마을 인구가 줄어든 요즈음은 마을 가운데를 관통하는 큰길에서 실시하고 있다. 추석 다음 날인 음력 8월 16일에 격년으로 당기고 있는 모포줄은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장기현 현감의 꿈에 뇌성산에서 한 장군이 용마를 타고 장군정에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하는 말이 “이 곳은 만인이 밟아 주면 번창하고 태평하며, 재앙이 없을 것이다”로 이르고 사라졌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을 밟아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줄다리기를 시작했고, 현몽한 날이 8월 16일이기 때문에 매년 이 날이 되면 줄다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은 일반적으로 벚짚으로 만든다. 모포줄은 짚에다가 칩닝쿨, 구피나무 껍질을 섞어 만들었다. 줄은 많은 사람들이 힘주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도록 동아줄을 여러 개 합사(合絲)하여 큰 줄을 만드는데, 줄 위에 사람이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굵고, 길이는 하나에 약 50m로 둘을 연결하면 100m쯤 된다. 줄의 모양은 뱀과 같은 형상이며, 머리줄, 목줄, 몸줄, 꼬리줄 등으로 이루어진다.

모포줄은 원래 모포2리에 해당하는 자연마을의 이름을 따서 ‘칠전큰줄’이라 불렀으나, 1984년 중요민속자료 187호로 지정되면서 ‘모포줄’이라 명명되었다.

2) 전승 실태

모포줄다리기는 원래 8월 16일부터 17일 새벽까지 행해졌으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중단되었다가 1954년에 부활되어 격년제로 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원 동원이 어렵게 되자, 1982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추석 명절날인 8월 15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모포줄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인식에 따라 영구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82년에 장기청년회의소에서 영일군의 재정 지원을 받아 줄 보관용 당집인 현몽각(現夢閣)을 건립하였다. 1984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187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1982년부터는 모포줄을 제작하여 행사 때 사용하고 있다.

1982년 이후 일월문화제 행사에 출연하여 시연하면서 해안에 접해 있는 구룡포읍, 장기면, 동해면,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등 6개 읍면을 동부로, 내륙에 위치한 연을읍, 신광면, 기계면, 죽장면, 대송면 등 6개 읍면을 서부로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였고, 1996년부터는 영일만 축제 행사에 출연하여 시연하면서부터는 남부(남구)와 북부(북구)로 나누어 당기고 있다.

3) 놀이 방법

모포줄은 동민들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포줄은 동제당에 보관된 신체로 흔히 암줄을 ‘할매’, 수줄을 ‘할배’라 하는데, 정월초에 여느 마을에 동제 지내 듯이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당기는 8월 보름에 줄제를 지낸다. 줄다리기를 위하여 줄을 꺼낼 때 드리는 줄제는 줄 앞에 상을 차리고 제관이 절을 두 번하고 술을 줄에다 뿌리는 형식을 진행된다.

줄제가 끝나면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각각 편장을 정한 후 목줄 위에다 편장을 태우고 장군정으로 가 큰절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줄다리기 장소로 향한다.

당집을 나와 줄다리기 장소에 올 때까지 앞에서 “이때저때 어느때고 춘삼월 호시절에” 하고 선창을 하면 다 함께 후창으로 “어화사 심경아” 하고 화답하는데, 이를 몇 번 반복하면서 나간다.

줄다리기 장소로 줄을 운반하면 줄 당길 준비는 거의 끝나고 줄을 연결시키는 일이 남게 된다. 줄은 동쪽이 암줄이고, 서쪽이 수줄이다. 동쪽은 바다 쪽이 되며, 서쪽은 내륙 쪽이 된다. 그래서 암줄인 동부(바다 쪽)와 수줄인 서부(산야 쪽)의 대결이 된다. 또 바다 쪽을 아래쪽(하부), 산야 쪽을 위쪽(상부)이라고도 한다. 이 구분은 칠전 마을을 관통하는 큰길을 중심으로 한다.

줄다리기는 암줄과 수줄을 연결시켜야만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줄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줄 연결에는 백여 명이 힘을 합쳐야만 된다. 줄을 연결시키는 일을 가리켜 ‘갯목 건다’, ‘곤목 건다’, ‘비너 꽃는다’로 한다. 두 개의 줄을 연결시키려면 비너 같은 큰 통나무를 끼워야 하기 때문이다.

줄을 연결시킬 때 양편은 두 줄의 머리를 마주 대고 대치한 채 먼저 다가오라고 한다. 양편은 함성을 질러 기세를 올리고 옆에서는 깃발을 흔들어 사기를 북돋운다. 줄의 머리를 들고 한참 동안 버티다가 시간이 촉박하면 수줄이 먼저 접근한다. 수줄이 접근하면 암줄(동부)의 머릿줄을 세워 벌린다. 그러면 수줄의 머리를 옆으로 세워 암줄 고리 안에 넣은 다음 갯목을 끼우게 된다.

줄다리기의 신호는 징으로 하고 있는데, 징소리가 한 번 울리면 각 편은 준비에 들어가고, 두 번 울리면 줄을 잡고 당길 자세를 취하며, 세 번 울리면 당기기 시작한다. 줄을 당기면 농악은 더욱 요란스러우며, 동부, 양편의 기와 마을 깃발을 좌우로 마구 흔든다.

줄다리기의 승부는 줄을 끌어 간 편이 승리한 것으로 판정한다. 심판의 종료 타징에 의해 줄다리기는 끝이 난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승자도 패자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농악에 맞추어 한바탕 놀이판을 벌인다.

놀이가 끝나면 줄을 당집으로 운반한다. 당집에 안치할 때는 암줄의 꼬리 부분부터 둥글게 쌓아올린다. 암줄 안치가 끝나면 암줄의 머리 위에 수줄의 머리를 맞대고 둥글게 쌓아 올려 수줄의 꼬리가 맨 위에 오도록 하여 다음 줄다리기를 할 때까지 모시게 된다. 다른 지방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나면 보통 줄을 없애는데, 모포줄은 영구히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구진마을 앓은 줄다리기

1) 유래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구진 마을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앓은줄당기기 또는 기줄당기기라고 부르는 줄다리기가 펼쳐진다. 앓아서 줄을 당킨다고 하여 ‘앓은줄당기기’라고도 하고, 암줄과 수줄이 각각 네 가닥으로 돼 있어 좌우의 다리가 각각 네 개인 ‘기’(‘계’의 방언)를 닮았다고 하여 ‘기줄당기기’라고도 한다. 줄은 흔히 ‘동네 할뻬 줄’이라고도 부른다.

옛날 이 마을에 2~3년 간격으로 별신굿을 해 왔는데, 어느 해에 굿을 하던 무당이 굿판에서 갑자기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불길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앞으로는 별신굿을 하지 말고, 대신 보름날 줄을 당기되, 여자들만 당겨야 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여자들만 참가한 가운데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한다.

2) 전승 실태

줄다리기는 마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골목을 경계로 남쪽을 말편, 북쪽을 새편으로 구분하여 편을 가른다.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을의 한 집에 여자가 몇 명이든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줄다리기에 관심이 아주 높아 “자던 사람도 보고 들어가고, 아픈 사람도 걸어 나올 정도만 되면 보고 들어간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구진 마을의 줄다리기는 무엇보다도 줄의 형태가 계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의 붉은 색과 날카로운 발은 귀신을 쫓는 색과 형상, 그리고 무수한 알은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엉금엉금 기는 계의 속성과 많은 다리를 가진 계의 형태를 모방하여 줄을 당기는 것은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마을 줄다리기는 또 여성들만 참가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남자들은 흥을 돋우는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할 뿐, 줄을 당기는 것은 여성 중심으로 행해진다. 줄을 앓아서 당킨

다는 점은 구진 마을만의 특징이다. 삼척이나 울진, 밀양 지방에도 계줄다리기라는 이름의 줄다리가 있으나 구진 마을과는 조금 다르며, 특히 구진 마을처럼 앉아서 당기는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3) 놀이 방법

줄은 원래 짚으로 만들었으나, 약 50년 전부터 뱃일에 쓰이는 로프로 바꾸었다. 암줄과 수줄을 연결하는 비너목을 ‘갯목’이라 부르는데, 배를 육지에 끌어올릴 때 어선 밑에 까는 갯목 중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쓴다. 줄은 줄다리기 장소인 마을 앞 도로로 남자들이 옮기며, 옮긴 다음에는 줄을 펴고 암줄과 수줄을 결합한 후 갯목을 끼운다.

10시 30분에 이 마을 여성들은 줄을 잡고 앉은 채 이장의 타징에 따라 당긴다. 줄다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줄을 당길 때 “이여차 이여차”라는 구호를 반복하고, 남자들은 풍물을 울리며 응원을 한다. 이긴 쪽에서는 줄다리기에 참가한 아낙네들이 갯목을 빼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제당까지 행진한다. 제당 앞에 갯목을 놓고 동신께 줄다리기가 무사히 끝났음을 고하는 제를 올린다.

4. 지계상여놀이

1) 유래

지계상여놀이란 지계로 상여를 만들어 장례 때의 운구(運柩) 풍습을 흉내내는 놀이를 뜻한다.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원에서 전승돼 온 지계상여놀이는 원래 ‘지계행상놀이’라 불러 왔으나, 1986년 (구)영일군에서 개최한 일월문화제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행상’이란 말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인 ‘상여’란 말을 넣어 ‘지계상여놀이’라 불러오고 있다. 놀이의 기능보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유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가난한 산간 지방인 이 지역에서는 사람을 산에다 매장할 때 관을 지계로 젖혀서 옮겼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거운 관을 지고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몇 개의 지계를 엮어매고, 그 위에 관을 얹어 여러 사람이 함께 메고 가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계행상’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계행상은 그 후 규격화된 목도행상이 일반화되면서 운구 도구로서의 기능이 소멸하게 되었다. 농번기가 끝나면 풀을 베거나 나무를 하는 일이 하루 일과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 지역 초동들은, 예로부터 지계를 지고 산에 오르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는데, 어느 날은 지계로 상여를 만들어 상여 메는 흉내를

내 보았다. 초상이 나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상여소리가 나자, 마을 어른들이 불길하다며 말리기도 하였으나, 초등들은 재미가 있어 계속하게 되었고, 또 이 놀이를 하면서부터 마을이 흥하게 되자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지계상여놀이의 유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집단연희(集團演戲)의 대부분이 고대에는 제의성(祭儀性)이 강하다 후대에 올수록 주술종교적(呪術宗教的) 성성(聖性)을 상실하고 차츰 놀이의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2) 전승 실태

지계상여놀이는 일제말기에 접어들면서 중단돼 버렸다. 죽장지계상여놀이가 발굴, 복원하게 된 계기는 1986년 10월 영일군에서 개최한 일월문화제 민속경연대회다. 이 대회에서 당시 죽장면 총무계장인 손봉익 씨가 과거 죽장면 산간지방에서 전해져 오던 짚치기, 지계목발노래, 어사령, 지계상여놀이 등을 묶어 ‘지계상여놀이’란 이름으로 출전시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이로써 지계상여놀이가 알려지게 되었다. 각기 다른 4가지의 놀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은, 이들 놀이가 다 같이 지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여 벌이는 일련의 놀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즉 지계상여놀이는 지계로 만든 상여를 메고 벌이는 놀이이고, 짚치기는 지계 작대기로 짚을 치는 놀이이며, 지계목발노래나 어사령은 지계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거나 나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지계상여놀이가 죽장면 지역에서만 전승돼 온 것은 이곳이 산간 오지여서 예로부터 지계 문화가 발달돼 있었던 탓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원시적인 운구 방법인 지계 상여로부터 개량된 운구 형태인 목도 행상으로의 이행이 늦은 데 원인이 있다. 죽장지계상여놀이는 1980년대 중반 놀이의 복원 당시 죽장면 내 4H클럽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능보유자인 입암리 정만희(상여소리), 두마리 이무용(어사령), 가사리 최상대(지계목발노래)의 지도를 받아 전승을 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죽장고등학교에서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승노력을 해 왔는데, 이때부터 짚치기나 지계목발노래, 어사령이 빠진 순수 지계상여놀이만 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능을 익힌 상당수 학생들이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는 문제가 있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죽장면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이 중심이 된 죽장지계상여놀이보존회에서 전승노력을 펼치고 있다.

3) 놀이 방법

지계를 지고 산에 오르다가 다시 따분함을 느끼면 무리 중 연장자에 해당하는 이가 “지계행상 하고 가자” 하면, 일제히 “예” 하고는, 지계를 벗고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늉을 한다. 사람이 죽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이웃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이기

도 하다. 이때에는 신을 벗어 쥐거나 막대기를 들고 땅을 치며 애통해 하는 시늉을 한다. 한참 이러다가는 일어서서 지계를 모아 상여를 만든다. 지계상여를 만드는 데는 10개 정도가 필요하다. 우선 8개를 2개씩 지계뿔이 서로 어긋나게 세운 다음 윗세장과 지계뿔을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이렇게 묶은 지계를 최대한 벌린 다음 (150° 정도) 4쌍을 나란히 놓고 지계 작대기를 지계뿔이 연결된 부분 위아래에 가로로 대고 다시 묶고, 목발은 목발끼리 묶는다. 이렇게 한 다음, 연결된 지계를 땅에 놓고 윗부분 중앙이 나머지 지계 2개를 종으로 마주 보게 얹어놓고 묶는다. 이 두 개의 지계는 관을 상징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관을 상징하는 지계 중 앞쪽에 있는 지계의 고다리에 흰 수건을 하나 묶어 단다. 흰 수건은 행상보를 상징한다.

상여가 완성되면 상두꾼 8명이 지계 다리 사이에 들어가 목발을 손으로 잡는다. 그리고는 이미 정해진 앞소리꾼이 “너화” 하면 상여를 들어 어깨에 둘러멘다. 앞소리꾼은 상여를 메지는 앞으나 지계상여의 앞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막대기로 상여의 앞부분을 일정한 박자에 맞춰 두들기면서 상여소리를 시작한다.

상두꾼과 앞소리꾼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주가 된다. 지계 작대기를 지팡이로 삼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고개를 숙인 채 곡을 하며 상여 행렬을 따르는 것이다. 상두꾼과 상주의 복장은 칠펙쿨을 머리에 두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은 과거 이 지역의 장례 의식 때 상주와 상두꾼이 칠펙쿨을 넣은 굴건을 썼던 데에 유래한다고 한다.

5. 월월이청청

1) 유래

월월이청청은 동해안 지방에서 전승되던 여성 민속놀이이다. 남해안의 강강술래와 같이 정월 보름날이나 팔월 한가위 달밤에 부녀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춤을 추는 놀이다. 이 놀이는 구미와 군위 등 경북의 일부 내륙 지방에서도 전승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포항과 영덕 등 주로 경북의 동해안에 전해지는 놀이다. 포항 지역에서는 청하면과 흥해읍, 동해면 등지의 해안 마을에서 주로 전승되어 왔다.

월월이청청이란 명칭은 인 놀이를 이끌어가는 일정한 가락을 가진 노래에 ‘월월이청청’이란 후렴이 붙은 데서 유래한다. 발생 시기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추정치가 불가능하나, 현존하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보았다는 증언으로 미루어 최소한 조선 중엽까지는 거슬러 올라간다. 이 놀이는 1930년대까지 포항 지방에서 성행했으나 일제 말기부터 중단되었고, 현재는 60대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 기억으로만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2) 전승 실태

월월이청청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가무 형식의 놀이다. 오직 여성들만으로 구성되는 놀이라는 점에서 남해안 지방의 강강수월래, 뚝다리밟기와 비슷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월월이청청이나 강강수월래, 뚝다리밟기 등은 본래 다른 놀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본디부터 공유해 온 달놀이였던 것이 지역적으로 다르게 전승,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월이청청은 정월 대보름과 8월 한가위에 주로 행해졌다. 이 날 저녁에 보름달이 떠오르면 고운 옷으로 단장한 열대여섯 살 처녀에서부터 갓 시집온 새댁들이 주동이 되어 동네의 공터나 마당 넓은 집으로 모여들어 월월이청청을 비롯한 달넘세, 재밟기, 대문열기, 동아따기, 외따기 등의 놀이를 했다.

포항 지방에서 월월이청청이 복원된 것은 1996년 포항정보여고(현 동성고) 이월희·강필숙(무용), 신훈(농악), 윤재덕(음악), 황인(자료수집 및 고증) 등 몇 명의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다. 이 때부터 이 학교 학생 1백여 명 의해 전승되어 왔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2001년 10월, 영주에서 열린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매년 핵심 단원들이 졸업을 하고, 신입단원을 새로 뽑아 지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2002년 이후 중단되었고, 지금은 포항문화원과 해도동 남인수씨가 각각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승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단계별 놀 방법은 대략 이렇다.

3) 놀이 방법

(1) 월월이청청

월월이청청은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춤는 놀이인데, 이 때 부르는 노래를 후렴인 “월월이청청”을 따서 월월이청청이라 한다. 사설은 일정하지 않고, 마을마다 가창자마다 다르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월월이청청
저기저기 저달속에	
	월월이청청
계수나무 박혔듯이	
	월월이청청
금도끼로 다듬어서	
	월월이청청

서울이라 남대산에 대문조금 열어주소
 동창문을 들어서서 남창문을 나가시오
 동창문을 들어서서 남창문을 안가겠소
 할수없네 할수없네 남대문을 열어주지

(5) 외따기

외따기는 여러 명이 두 패로 나뉘어 각 패는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서로 꼬리는 잡히지 않으려고 빙빙 돌며 꼬리를 따내는 놀이다. 노래는 문답창으로 부른다.

저달봤나
 난도봤다
 저해봤나
 난도봤다
 저별봤나
 난도봤다
 저하늘봤나
 난도봤다
 저구름봤나
 난도봤다

(6) 실구리감기

실구리감기는 실구리를 감듯이 나선형으로 감아 돌아가면서 감은 다음, 반대방향으로 풀면서 노는 놀이다. 감을 때는 “실꾸리 감자, 땡기꾸리 감자”를 반복하고, 풀 때는 “실꾸리 풀자, 땡기꾸리 풀자”를 반복한다.

제6절 민속 신앙

1. 동 제

1) 포항지역 동제의 전승양상

동제(洞祭)는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신앙하는 민간 신앙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동제는 멀리 삼한(三韓) 시대의 제천의식을 거쳐 단군신화(檀君神話)에까지 그 기원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속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 온 생활사적 발자취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 한국 기층문화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동제는 혈연 중심의 기제(忌祭)나 묘제(墓祭)와는 달리 지연성이 중요시되어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을 떠나면 그 제의와 관련이 없어진다. 따라서 제의를 주관하는 제관도 마을 사람 중에서 깨끗한 사람, 즉 집안에 초상이나 출산, 우환 등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고,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사 때까지 일정 기간 금기를 행하여야 한다.

마을의 조상신 혹은 수호인(골매기)에게 풍농·풍어와 제액(除厄)을 청원하는 동제는, 포항 지역의 경우 1990년 현재 235개 마을에서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내지 않는 마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조만간 주민의 고령화로 전승의 단절 또는 원형의 훼손이 예상되고 있다.

포항 지방에서 동제당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제당(祭堂), 동제당(洞祭堂), 당산(堂山) 등으로 불리며, 제명은 동제(洞祭), 당제(堂祭) 등이 일반적이다.

제당의 형태는 신수(神樹) 아래 돌로 쌓아 단(壇)을 이루거나 신수 주위에 돌담을 쌓아 올려 울타리를 한 경우, 그리고 신수 옆에 당집을 지어 놓은 것 등이 일반적이거나, 신목 아래 거석(巨石)이 있는 경우(기계면 문성리), 신목 아래 돌무더기가 있는 경우(죽장면 두마리), 우뚝 솟은 자연석을 당으로 삼는 경우(신광면 만석리), 길가에 소나무 가지뚝을 세워 당으로 삼는 경우(장기면 영암리)도 있다. 내당·외당(죽장면 입암리 큰마을), 할배당·할매당(장기면 황계 마을), 산신당·동제당(청하면 안청계 마을)처럼 제당이 돌로 나누어져 있는 곳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 대체로 내당이나 할배당, 산신당에서 먼저 지낸 후 외당, 할매당, 동제당에서 지낸다. 동제의 시기는 음력 정월 보름날이 주류를 이루나, 지역에 따라 음력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에 지내기도 하며, 최근에 양력 8월 15일로 변경하여 지내는 경우(기북면 덕동마을)도 있다.

신체(神體)는 위패가 있는 경우 위패가 신체를 표현하지만, 위패가 없는 경우 보통 신목이 신체를 나타낸다. 그 밖에 신화(神畵)(칭하면 청진2리), 바위(신광면 만석리), 줄(장기면 모포리), 영기(靈旗)(칭하면 덕성1리), 간수항아리(흥해읍 북송리)가 신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신의 명칭은 동신(洞神), 사신(社神), 후토지신(后土之神), 산신(山神), 사한(司漢), 성황당신(城隍堂神), 토지신(土地神), 골목할배·골목할매 등 다양하며, 입향조의 성씨를 넣어 ○씨터전·○씨골목, ○씨할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제사의 절차는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사신(辭神), 소지(燒紙), 철상(撤床)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에는 마을에 따라 간소화되어 독축 등 일부 순서가 생략되기도 한다. 제사 후에는 마을의 풍물패가 각 가정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는 곳도 있다.

다음은 2002년 8월 23일(음7.15) 새벽 0시에 행한 죽장면 매현1리 동제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2) 매현 마을의 동제

(1) 마을 현황

매현마을(죽장면 매현1리)은 월성손씨 집성촌으로 32가구에 인구는 60명이다. 30.4ha의 경지면적에 고추, 담배, 사과 등 밭작물을 재배하여 연평균 2,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제당이 있는 곳의 주변을 당터라 하며, 약 1,000평의 대지 위에 느티나무, 떡갈나무, 말채나무 등 200~500년생 노거수 10여 그루가 큰 숲을 이루고 있다. 2002년에 포항시로부터 테마 마을로 지정되어 갖가지 사업 시행 중이다.

(2) 동제 연혁

옛날에는 동제를 연4회(정월보름, 단오, 백중, 당곳) 지냈다. 정월보름과 단오에는 당제를 지내고, 7월보름에 당제와 천제(항상 농사지을 물이 흔하도록 기원하는 제사로 하천 바닥에 돌로 천제단을 쌓아 시행)를 지내며, 당곳은 날을 받아 하되 무당을 시켜 지냈다. 그러나 당곳은 60여 년에 폐지되었고, 이후 단오 동제도 폐지되었으며, 최근(약 10년 전)에는 정월보름 제사를 폐지하고, 백중제만 지내고 있다. 당제와 천제를 지낸 다음 마을에 들어와 골목에서 노제(길 가는 사람이 사고 없기를 기원하는 제사)도 지냈으나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3) 동신

동신으로 이씨배판, 강씨터전, 손씨가정 세 위를 모신다.(배판 : 맨 처음 마을에 들어온 성씨, 터전 : 두 번째 들어온 성씨, 가정 : 현재 살고 있는 성씨)

(4) 당의 형태

수백년 생 느티나무, 참나무가 울창한 당숲이 있고, 느티나무 신수 아래 보호 철책을 한 제단이 있다.

(5) 경비 조달

제사에 드는 경비는 약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호당 1~2만원 정도 각출하여 충당한다.

(6) 제관

‘주제자’(‘동제를 주관하는 사람’이란 뜻)라 한다. 본래 제일 닷새 전에 동회에서 선출했으나, 요즈음은 백중(음7.14) 전날 아침에 ‘당 뺏기’(제당 청소를 의미함)를 한 후 1명의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제일 3일 전부터 집 앞에 황토 깔고, 대문에 김기(금줄)를 친다.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를 하고, 부부간 잠자리도 피하는 등 몸을 정결히 한다.

(7) 장보기

14일이 죽장 장날이면 죽장장에서 제수를 구입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함까지 간다. 교통편이 좋은 요즈음은 아예 포함 죽도시장까지 갈 때가 많다. 장보러 갈 때는 오전에 일찍 가서 수지(남이 사기 전에 사는 물건)를 산다. 장을 볼 때는 에누리를 하면 안 된다. 장보러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8) 제수 장만

전에는 제관 집에서 장만해 왔으나, 요즈음은 마을 회관에서 준비하며, 제관을 중심으로 남자들이 한다. 제수는 포, 통닭, 조기, 수박, 대추, 밤(깎지 않은 것), 배, 사과, 포도 등이다. 천제에 이어 당제를 지내야 하므로 반드시 제수는 두 벌을 준비한다.

(9) 당뺏기

날이 밝으면 집집마다 1명씩 모여 공동작업 형태로 당 뺏기를 한다.

① 금줄 치기

3명 정도 짚과 한지를 가지고 나와 금줄(주민들은 ‘깁기’ 또는 ‘금새끼’라 한다)을 만든다. 새끼를 다 끈 후에는 한지로 소지를 만들어 새끼가닥에 끼운다. 약 100m 정도의 금줄이 만들어지면 일부는 성주당나무(약 300년생 느티나무, 둘레 약 4m)와 천제단을 두를 20m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당 숲 외곽(서편)에 줄을 친다.

② 청소

3명 정도는 당터 주변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 청소를 한다.

③ 제단 만들기

솔가지(길이 약 1m) 대여섯 개와 한지(접은 것)로 성주당나무를 감싼 다음 금줄로 두른다.

④ 천제단 만들기

천제단은 마을과 제당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가사천 바닥에 쌓는다. 주변의 돌을 주워 모아 둥근 원통형으로 쌓는다.(높이 약 1m, 지름 밑부분 2m, 윗부분 1.5m)

(10) 당제 절차

- ① 분향, 강신 : 제주가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운다. 집사자가 강신 술잔을 주면 제주는 술잔을 받아 모사(茅沙) 위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제자리에 놓고 제주는 재배한다.
- ② 참신 : 제주와 제관들은 재배한다. 신위에 인사하는 의례다.
- ③ 헌작 : 제주가 잔을 올린다.
- ④ 정저 :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다.
- ⑤ 국궁 : 몸을 굽힌다.
- ⑥ 사신재배 : 신을 보내는 절차로 제주와 일동이 재배한다.
- ⑦ 철찬 : 숟가락을 거둔다.
- ⑧ 소지(4번) : 동민 소지, 짐승(가축) 소지, 농사 소지, 동네 소지
- ⑨ 철상 : 제수를 거둔다.

(11) 천제

당제가 끝난 0시 20분, 제당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천제단으로 이동하여 천제단 위에 진설(제수는 당제와 동일)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 제의 절차는 당제와 같으나 소지가 없다.

(12) 신의 영험

- ① 군에 가는 장정들은 반드시 제당에 가 절을 하고 당을 한 바퀴 돌아서 가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 중 군에 갔다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 특히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입대했지만,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모두 살아 돌아왔다.
- ② 제사 때 정성이 부족하면 범이 자갈을 퍼서 던진다.
- ③ 마을에 개가 자꾸 없어지면 범이 물고 갔기 때문으로 여겼으며, 이는 동제를 잘못 모셨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 산신제

1) 내연산 일대의 산신 신앙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끔찍이 산신을 섬겨 왔다. 어느 산에든 산신이 있다고 믿었기에 아직도 산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조상 묘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산신제부터 지내는 게 순서처럼 돼 있다.

산신 중에서도 이름 난 산신이 더러 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하여 다스리다가 아사달에서 산신이 되었다 하고, 석탈해왕이 죽어 토함산 산신이 되었다 하며, 박혁거세 왕비인 알영부인은 선도산 성모(聖母)가 되었다 한다. 또 제2대 남해왕의 부인 운제부인은 운제산(대송면 산여리와 오천읍 향사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 481.5m) 성모가 되었다고 하며, 지리산 산신은 지리산 성모(聖母)이다. 포항을 대표하는 산, 내연산에는 어떤 산신이 있는가? 바로 ‘할무당 할매’다.

동해안에는 어느 마을이나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동제당이 있는데, 송라면 대전리 산령전 마을엔 동제당 외에 백계당(白啓堂)이란 현판이 붙은 산신당이 있고, 여기에 돌로 조각한 산신을 모셔 놓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할무당이란 이름을 가진 이 곳 산신을 위해 인근 14개 마을 사람들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내연산 계곡 첫달목 제단에서는 연산계(延山契)에서 매년 사월초과일 새벽에 할무당 할매에게 제사를 지내고, 덕곡(중산3리), 학산(중산2리), 두곡(대전1리) 등 3개 마을에서는 동제당에 할무당 할매 위패를 모신 가운데 매년 1월 15일 동제 지낼 때 함께 잔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포항 지역의 민간 신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산 산신 할무당 신앙의 전승현황 및 민속적 의의에 대해 최근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내연산 산신 할무당

(1) 백계당의 역사

할무당 할매를 모신 신당에는 백계당(白啓堂)이란 현판이 붙어 있다. 이 신당은 원래 현재의 위치로부터 위쪽으로 약 2km쯤 떨어진 내연산 문수봉과 삼지봉 사이 할무당재에 있던 것을 1928년에 이 건한 것이다.

할무당재에 있던 신당을 현재의 위치로 옮긴 이유는 할무당재가 마을에서 너무 먼 산간고지에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야간에 제사 지낼 때 제수 운반에서부터 인원 동원 등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 하며,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할 때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 한다. 백계당과 관련한 문헌을 통해 백계당의 연혁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건(미상)

- | | | |
|--------------|-------|------------------------------|
| •1890년(경인) | 3. 20 | 송봉계 조직, 계안(稷案) 작성, 회계책 작성 시작 |
| •1892년(임진) | 3. 9 | 중건, 당호(堂號) 짓고 현판 닦 |
| •1892년(광서18) | 3. 16 | 설계문(設稷文) 작성 및 중수 |
| •1901년(광무5) | 2. 11 | 화재로 중수 |
| •1907년(정미) | 3. | 수계(脩稷) |
| •1914년(대정3년) | 7. | 중수 |
| •1928년(무진) | 3. | 이건 |
| •1961년(신축) | 8. 8 | 중건 |

(2) 백계당송봉계의 설립과 운영

할무당 신당은 무엇보다도 계 조직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동체 신앙이 대부분 마을 단위의 지연(地緣)에 의해 유지·운영되는 데 비해 백계당은 신앙 중심의 자발적 조직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 점은 신앙심이 강한 계원들 간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 지연 중심으로 유지되는 동제에 비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백계당송봉계는 1892년 신당 중수를 계기로 설립되었고, 제일(祭日)을 3월 16일로 정했다. 제사를 현재 3월 15일에 지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제사를 새벽 0시에 지내다가 불편하니까 근년에 전날 저녁으로 몇 시간 당김으로써 빚어진 현상이다.

(3) 할무당 신앙의 전승 범위

마을 단위의 동제나 산신제는 보통 특정 마을 주민을 범위로 하는 신앙 행위이다. 따라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신앙의 범위 밖이 되는데, 할무당 신앙은 마을과 상관없이 할무당을 신봉하는 계원에 한정하여 전승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백계당송봉계안(白啓堂崇奉稷案)』 등 문헌에 수록된 계원 명단에는 산령전이나 인근 마을 외에도 원거리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성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지만, 신당 운영의 중심 세력은 산령(현 대전3리), 덕곡(현 중산3리), 학산(현 중산2리), 하광(현 광천1리), 광천(현 광천2리), 조사(현 조사리), 방어(현 청하면 방어리), 방화(현 방석1리), 독석(현 방석2리), 이진(현 화진1리), 대진(현 화진2리), 화산(현 화진3리), 심방(현 대전2리), 두곡(현 대전1리) 인근 14개 마을 주민들이었다. 14개 마을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백계당송봉계에 참여해 온 마을을 한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백계당이나 산령전을 떠나 내연산 전체로 보면 할무당 송봉처는 백계당만이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내연산 계곡 첫달목 제단에서는 연산계(延山契)에서 매년 사월 초파일 새벽에 제사를 지내고, 덕곡(중산3리), 학산(중산2리), 두곡(대전1리) 등 3개 마을에서는 동제당에 할무당 할매 위패를 모신 가운데 매년 1월 15일 동제 지낼 때 함께 잔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내연산 일대에 폭넓게 퍼져 있던 내연산 산신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독립적인 신당 건립으로 이어지고, 할매를 숭봉하는 계가 조직되는가 하면, 어떤 계기에 의해 신상이 제작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신앙이 확산되어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4) 신의 명칭 및 신화

신당에 봉안된 석상은 우리말로 ‘할무당’이라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명칭이기도 하다. 각종 문헌에는 한자로 ‘姑母堂’이라 표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은 아니다. ‘고모당’의 ‘고모(姑母)’는 ‘할머니’의 한역(漢譯)으로 존엄하고 신령한 여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할무당’의 ‘할무’는 할머니의 방언 ‘할무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당(堂)’은 존칭 접미사이다. 사람들은 보통 ‘할무당 할매’로 부른다. 할무당 할매 오른쪽에 석위패로 모셔진 대권산왕대신(大權山王大神)은 주민들이 보통 ‘신령님’이라 부른다. 산신령이란 뜻이다.

할무당 할매 신화는 “보경사에 박씨 성을 가진 아무 의지할 데 없는 할머니 보살이 있었는데,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 부처님께 ‘공들이는 데’ 데리고 가 없애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밤, 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를 업고는 산꼭대기에 모셔다 놓아, 거기서 할무당 할매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5) 신당과 신체

현재의 신당은 1960년에 중건한 목조건물로 건평 9㎡ 정도이며, 맞배지붕에 합석을 얹었다. 방향은 동북향(東向)이며, 처마 밑에 ‘白啓堂’이라 쓴 현판을 달았다. 입구를 제외하고 1.5m 정도의 높이로 돌담을 둘렀다.

백계당에 봉안된 신체는 둘이다. 왼쪽에 할무당 할매 석상을 모시고 있고, 오른쪽에 나무대권산왕대신지위(南無大權山王大神之位)란 석위패를 모시고 있다. 이 둘은 내외 지간이라 한다. 할무당 석상은 높이 35cm인데, 몸체 아래 7cm 높이의 좌대가 조각되어 있다.

(6) 제의의 전승 현황

2003년 4월 3일(음력 3월 15일) 밤 10시에 진행된 백계당 제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관 선임 : 계원 중 유고가 없는 사람을 선정. 박철우(남. 76) 선정
- ② 제비 마련 : 산령계 계비 적립금에서 지출. 이치우 유사 5만원 찬조
- ③ 제수 준비 : 포항시내 죽도시장에서 제수를 구입하고, 제관집(흔히 ‘도가’라 한다)에서 음식을 장만
- ④ 진설 형태

메	술잔	술잔	메
해물(조기, 가자미)	나물(고사리, 도라지, 무)		
포	탕		탕
돼지고기	문어	두부전	유과
대추	감		백빚
			배

⑤ 제의의 절차

백계당 제사는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첨잔(添盞), 삽시(插匙), 합문(闔門), 헌다(獻茶), 철시(撤匙), 사신(辭神), 소지(燒紙) 순으로 이어지는데, 전통적인 유교 제의의 일반적 절차를 근간으로 하되 약간 변형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의의 특성상 소지(燒紙)가 중요한 절차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에는 독축을 하였으나 근년에 와서 생략할 때가 많다 한다.

(7) 백계당의 민속적 의의

백계당은 포항 내연산 산신의 형상을 돌로 조각하여 모시고 있는 신당이다. 이 신당과 관련된 문헌에는 1890년에 만들어진 백계당승봉계안과 1890년부터 1929년까지 40년간의 회계 기록인 회계책, 1960년경에 만들어진 계원방명록, 신당 내부에 편액에 쓰여진 8개의 기문 등이 있어 백계당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산간오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산신당 운영과 관련하여 약 120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 놓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로 민속적 의의가 매우 크다.

백계당은 일반 동신당처럼 자연에 의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신앙 중심의 계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계당을 운영하는 조직은 백계당승봉계로 1890년에 조직되어 120년 동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백계당에 모셔진 할무당은 신당이 세워지고, 석상이 조성되는 등 신봉자들의 신앙심이 강화되면서 신당 소재지인 산령전 마을을 비롯한 송라면과 청하면 일대 다수의 주민은 물론, 수백 리 떨어진 원거리의 신봉자들까지 참배할 정도로 확산된 민간 신앙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별신제

1) 동해안 별신제

별신제는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무당에 의해 굿거리로 행하는 마을 제사를 말한다. 이 별신제를 사제(司祭)하는 무당은 마을과 혈연적으로나 지연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문적인 직업무(職業巫)들이다. 이들은 완전히 수업(修業)과 수련에 의해서 가무(歌舞)를 익히고 사제 기술을 익힌 무당들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제를 해준다. ‘별신’이라는 이름의 제의(祭儀)는 안동시 하회 마을 같은 일부 내륙 지방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나, 풍어 기원제로서의 별신제는 동해안과 남해안의 별신제를 한정하는 이름이다. 별신제는 ‘별신굿’, ‘별손’, ‘벨손’, ‘벨신’ 등으로도 불리고, 굿 행위는 ‘별신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별신제는 사실상 별신굿이다.

근래에 와서 ‘풍어제’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어촌의 풍어 기원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별신제는 풍어의 기원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의는 아니고, 어느 면에서는 마을의 무사와 풍농, 여행자의 사고 방지 등 다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별신제의 대상신도 당신(堂神)을 비롯한 여러 존신(尊神)이 되고 있다. 이 별신제는 현재 동제 후에 동제와 연결되면서 행해지는데, 엄숙한 유교식 제의 형식의 동제와는 달리 분방한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김석출 무당패

동해안 별신굿의 무당패들은 서로 혈연관계이거나 혼인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특수 조직체이다. 이들은 한 마을에서 굿이 끝나고 다른 마을의 굿에 연결이 될 때도 계속 같이 이동하면서 공동생활을 한다. 마을에 여관이 있으면 각자 가족끼리 방을 사용하지만, 여관이 없거나 외진 마을인 경우에는 마을에서 제공한 방에서 합숙을 하기도 한다. 식사는 물론 화주(化主)의 집에서 제공한다.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인 김석출은 1922년 포항에서 태어나 8살 때인 1930년에 동해안별신굿에 입문했다. 일명 경남(京南)이라고도 한다. 동해안 최고의 무당으로 굿뿐만 아니라 염불에도 능하며 호적·장구·팽과리 등의 연주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할아버지 천득(千得)이 춤과 노래를 좋아하여 이 옥분이라는 무녀(巫女)를 첩으로 얻으면서부터 무가(巫家)를 이루어 현재 70여 명이 세습무로서 무업에 종사하고 있다. 친족들이 부산·울진·강릉·주문진 등지에 살면서, 부산으로부터 강원도 거진까지 동해안을 따라 별신굿을 하고 있다. 1985년 2월 1일 기능보유자(악사)로 지정됐다가 지난 2005년 4월 20일에 명예보유자가 됐다. 2006년 7월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으로 부인(김유선)과 1남 9녀가 있다.

3) 포항 지역의 별신제 실태

포항 지역에서는 현재 장기면 계원리(황계), 신창리(죽하), 영암리(수용포), 구룡포읍 구룡포리, 삼정리, 석병리(들포), 대보면 강사리, 구만2리, 대동배리(대동배, 장내), 흥해읍 용한리(소한, 용덕), 칠포리, 청하면 청진리, 이가리, 용두리, 송라면 조사리, 방석리, 화진리(구진), 지경리 등 20여 개 어촌 마을에서 3년~10년 간격으로 별신제를 지내고 있다.

4) 굿의 내용

별신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굿거리이다. 무의(巫儀)는 곧 한 거리 한 거리씩 굿을 해 나가는 과정이며, 여기에 맞춰 무복(巫服) 음악도 약간씩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동해안 별신굿의 석수(席數)는 원래 부정굿, 골맥이서낭굿, 심청굿, 손님굿, 용왕굿 등 12거리였으나, 근래에는 내당굿, 의당굿 등의 명칭을 붙여 굿거리 수를 늘리기도 하는데, 33, 34거리까지 만들기도 한다.

4. 기우제

1) 포항 지방의 기우제 실태

극심한 한발이 닥칠 때 우리 지방 민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풍수지리설에서 연유한 것으로 명산에 묘를 쓰면 그 지역에 가뭄이 든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가뭄을 몰고 온다는 전설상의 동물인 ‘강철이’가 출현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농민들은 명산에 암장(暗葬)된 묘를 파낸다든지 강철이를 쫓는다든지 하여 가뭄을 몰고 온다고 믿는 원인 제거에 힘썼다. 그런가 하면 시장을 하천 바닥으로 옮김으로써 기우(祈雨)를 행하기도 했는데, 흥해장은 곡강천으로, 청하장은 서정천으로, 신광천은 개박천으로 옮기는 것이 그 예이다.

포항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기우제를 지내 왔거나 가뭄이 들면 묘를 파헤친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는 산은 운제산, 비학산, 형산, 고주산, 덕성산 등이다. 남구 대송면 산여리에 위치한 운제산(478m)은 삼국유사(三國遺事) 남해왕(南海王) 조에 “지금 영일현 서쪽에 운제산 성모가 있는데, 가뭄 때 기도하면 응함이 있다(今迎日縣西有雲梯山聖母祈旱有應)” 하고 써어 있어 기우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비학산(762m)은 영일읍지(迎日邑誌)에 “가뭄 때 빌면 응함이 있는데, 황모모씨와 김모씨가 몰래 묘를 쓰니 사람들이 몰려가 파헤쳤다(旱禱則應皇甫某金某偷葬人民齊會掘去)” 라고 전하고 있다. 그밖에 형산(연일읍), 고주산(청하면), 덕성산(청하면)에 관한 영일읍지의 기록도 비학산의 것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포항 지방에는 예로부터 기우와 관련된 기록이 많고, 특히 명산 봉우리에 묘를 쭈면 가뭄이 들므로 이를 금기시하는 신앙이 있어 왔다.

포항 지역에 이처럼 기우(祈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하는 것은, 이곳이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대표적인 과우(寡雨) 지역이어서 가뭄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었던 데 있다. 여기서는 포항 지역의 대표적인 기우제라 할 수 있는 비학산 기우제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비학산 기우제

비학산(飛鶴山)은 전통적으로 기우제로 유명한 산이다. 이 산 봉우리에 묘를 쓰면 한발이 든다는 신앙이 있어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6~8월에 심한 가뭄이 닥치면 농민들은 으레 산봉우리에 묘를 썼기 때문이라고 믿고 산에 올라가 묘를 파헤치곤 했다. 위에서 말한 영일읍지의 기록뿐만 아니라 일월향지(日月鄉誌)에도 “일제 때

황보모씨, 김모씨, 이모씨, 손모씨 등이 암장하니 부근 면민이 봉기하여 파내므로 폭동화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할 정도다.

최근에 묘를 파헤친 사건은 1982년과 1994년이다. 1982년 여름, 흑심한 가뭄이 닥쳐 논바닥이 갈라지고 식수난까지 겪게 되자 당시 신광면, 청하면, 기계면, 흥해읍 등 4개 읍면의 주민들은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 산으로 올라갔다. 호미 한 자루씩 쥔 주민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으로 올라가 무덤같이 생긴 곳은 모조리 파헤쳤다. 20세기 최악의 가뭄이 닥쳤던 1994년 8월 23일에도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주민 200여 명이 암장된 묘를 파헤치기 위해 이 산 정상으로 오른 바 있다.

비학산 기우제는 보통 이 산 6부 능선에 있는 무제등(‘무우제등[舞甯祭嶺]’이 변한 말)에서 지내며, 이 곳에서의 기우제는 1982년 8월에 지낸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인데, 이 행사에는 보통 신광면장을 비롯한 각 마을 대표가 참석한다. 1994년에는 이 산 정상에서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참석했다.

기우제는 자정에 지내는데, 그 날 저녁 제관은 비학산 계곡에서 목욕재계하고 축관은 손발톱을 깎아 몸을 정결히 한다. 제물로는 대추, 밤, 곶감의 삼실과(三實果)과 백떡, 생닭을 쓴다. 특히 닭은 반드시 흰 닭을 산 채로 쓰는데, 제사 후에는 목을 잘라 그 피를 주위에 뿌린다. 기우제의 순서는 일반 제사와 비슷하며, 축문은 신령에게 가뭄이 흑심함을 알리고,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비를 내려 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비학산 정상으로 올라간다. 해가 떠오르면 봉화를 하면서 “물이야.”하고 몇 번 함성을 지른다.

참고문헌

- 박일천, 《일월향지》, 일월향지편찬위원회, 1967.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1990.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99.
박경신, 《동해안 별신굿》, 화산문화, 2002.
하효길·황효창, 《강사리 범굿》, 열화당, 1989.
김화숙, <소리춤 월월이청청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1993.
남상익, <포항·영덕 지역의 월월이청청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1998.
심우성, 《우리나라 민속놀이》, 동문선, 1996.
박창원, <죽장지계상여놀이 연구>, 《포항연구》9, 포항지역사회연구소, 1992.
박창원, <포항지역의 노동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1997.
박창원, 《포항지역 구전민요》, 포항문화원, 1999.
박창원, <포항 덕성마을의 동제 연구>, 《한국민속학보》9, 한국민속학회, 1998.
박창원, <포항 구진마을 전설과 얹은줄다리기의 성격>, 의재최문식박사화갑기념논총, 2002.
박창원, <포항지방의 대보름 민속>, 《포항문학》21, 한국문인협회포항지부, 2002.
박창원, <내연산 산령전마을 백계당 연구>, 《동대해문화연구》12, 동대해문화연구소, 200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2~2004.
한국전통의례연구회, 《전통 관혼상제》, 일송미디어, 2005.